

# 비바

## 성폭력

**Vol.3**  
2011 하반기호

### 기획특집

성폭력을 말하다

### 쟁점과 입장

일령이는 여론, 쫓아가는 수사·재판\_도가나와 고려대  
여성가족부를 위한 불편한 변명  
침묵의 카르텔, 그들은 침묵했지만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 프리즘

일터, 행복이라는 '꿈' 차별이라는 '현실'

### 성문화 읽기

결국, 하고 싶은 말\_사후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논쟁을 보며

### 사례연구

진실을 말하지 않는 CCTV



8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성폭력, 미술로 말하기

루니 • 송su:m • 숲 • 우유니 • 이안 • 진진

성폭력/피해를 둘러싼 '이미지'와 수많은 질문들.  
시각예술작품을 통한 생존자 6인의 공개담변!

시 2011.12.01 목요일 - 06 화요일 am10:00 - pm7:00

말하기 2011.12.03 목요일 pm4:00 12.06 화요일 pm7:00 (11시 50분 입장) (주최: 성폭력상담소)



[정동경매장 (공화문역 6번 출구)]

주최: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http://users.sk.kr/Speakout> 02-338-2890-1

# 바

성폭력

**Vol. 3**  
2011 하반기



# 1

## 기획특집 [성폭력을 말하다]

- 8 '말하기의 의미'에 대하여
- 13 말하기, 소통과 공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다
- 18 자신만의 말하기의 시점
- 23 함께 행복하고 싶어서 찾아나선 길, 나의 말하기
- 28 아직 남은 말들

# 2

## 쟁점과 입장

- 30 일렁이는 여론, 쫓아가는 수사·재판·도가니와 고려대
- 34 여성가족부를 위한 불편한 변명
- 39 침묵의 카르텔, 그들은 침묵했지만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 대안 읽기

- 43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담

## 프리즘 [일터, 행복이라는 '꿈' 차별이라는 '현실']

- 50 노동의 세계로 들어간 여성의 일과 삶
- 56 참 짧고도 길고 길고도 짧은 '우리'들의 하루
- 62 작은꽃 아픔으로 피다

## 통계 이야기

- 68 통계로 본 직장내 성희롱 피해 실태

## 성문화 읽기

- 73 결국, 하고 싶은 말\_사후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논쟁을 보며

# 3

## 생존자 말하기

- 78 저는 제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 83 자연의 작은 성공기

## 성폭력과 사람들

- 87 함께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야

## 사례연구

- 91 진실을 말하지 않는 CCTV

# 4

## 여성주의로 문화예술 읽기

- 96 왜 이 몸이냐고 물으신다면\_제니 사빌(Jenny Saville)

## 날말퍼즐

- 102 아낌없이주는나무





# 1

기획특집 [성폭력을 말하다]

‘말하기의 의미’에 대하여  
말하기, 소통과 공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다  
자신만의 말하기의 시점  
함께 행복하고 싶어서 찾아나선 길, 나의 말하기  
아직 남은 말들

# { 성폭력을 말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1991년 문을 연 이후로 20년 동안 성폭력 생존자들의 ‘말하기’는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낸다”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때, 그 수화기를 잡고 있던 활동가의 깊은 탄식도 함께 흘러나왔다. 6만 8천여 회의 상담일지에 빼곡하게 담겨있는 그녀들의 ‘말하기’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마련하며 세상의 편견에 도전하는 반성폭력 운동의 주춧돌이다.

물론 말하기는 그 이전에도 있었다. 어느 대학생이 자신이 겪은 성고문 사건을 세상에 알렸고, 전시 성폭력 실태를 세상에 고발한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용기로 세계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4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생존자는 무대 뒤편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과정을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조교의 용기있는 말하기가 성희롱을 법제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 기획 특집

반성폭력 3호 기획특집 〈성폭력을 말하다〉에서는 여전히 금기되어 있는 ‘성폭력’을 꺼내 말하는 것에 관하여 다채로운 글을 소개한다. 권김현영은 강요된 침묵이 낳은 고통과 폭압에 맞선 목숨을 건 말하기의 역사를 소개하며 말한다는 것 자체에 담겨 있는 말하기의 의미를 강조한다. 마도는 2003년도부터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해오고 있는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에 대해서 말한다. 처음 말하기대회를 준비했던 취지와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해 집단적 말하기가 가지는 힘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말하기를 실천한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진다. 영화를 통해 입을 연 이후의 변화를 담담하게 써내려간 아오리의 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인터뷰 형식으로 말하기의 경험을 들려주는 한새의 목소리, 그리고 제7회 성폭력생존자 말하기대회 무대에서 부른 노랫말을 직접 썼던 달가루의 시는 성폭력 말하기를 둘러싼 여러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장을 제공한다.

# ‘말하기의 의미’에 대하여

권김현영 |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본 상담소 자문위원

## 백년 동안의 침묵

19세기 후반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도무지 원인을 찾기 어려운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여자들이 도처에 출몰했다. 그녀들은 갑작스럽게 말을 잃어버리거나, 남자와 함께 한 방에 있으면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했고, 밤에 자다 일어나 술병을 깨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일도 있었다.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결혼을 위한 사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여자들도 점점 늘었다. 이 증상을 부르는 이름은 한때는 여자의 자궁이 뇌에 옮겨진 결과라고 믿어졌던 그 질병, 바로 히스테리였다.

당시 유럽에서는 근대적 의료지식이 막 꽃을 피우고 있었다. 동물의 해부학을 통해 얻은 새로운 지식들이 연일 신문을 장식하면서 세간의 지적 호기심에 불을 지폈고, 생리학·뇌신경학·심리학 등 낯선 이름의 학문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발견을 알리고 각 분과 학문들의 전문적 권위를 수립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던 시기였다. 때문에 좀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여성들을 치료

하는 일은 곧 학자로서의 명성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했다.

신진 학문을 연구하던 당대의 학자들은 중세에는 아마도 마녀로 불렸을 이 기이한 증상의 여자들을 과학으로 해명하고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당시 가장 효과적인 치료로 알려졌던 최면술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의대를 6년이나 다니면서 생리학 연구를 하고 있던 프로이트는 우연한 기회에 브로이어 박사를 만나 그의 환자였던 베르타 파펜하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베르타는 부유하지만 보수적인 집안에서 부친의 반대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책을 읽는 것조차 금지당한 베르타는 부친의 병을 간호하다가 빈혈과 식욕부진의 상태에 빠져 브로이어 박사와 상담을 시작했지만 증상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다. 중국에는 아예 간단한 영어 말고는 모국어인 독일어를 전혀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브로이어 박사는 개인사정상 더 이상의 치료를 하기 어려웠고 마침 연구자로서의 앞날이 불안정했던 프로이트에게 주치의 자리를 넘겨준다. 프로이트는 베르타의 흥미로운 이 증례를 치료함으로써 히스테리의 원인 전반을 분석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야심만만한 프로이트의 치료계획을 듣던 베르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단지 잠시의 평온함일 뿐이라고 말하고, 프로이트에게 ‘대화치료’라고 불리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 대화치료의 효과는 놀라울 정도였다. 마침내 1896년 프로이트는 베르타를 포함하여 여섯 명의 환자들이 보이는 히스테리의 원인으로 친족 내에서 일어난 근친 성폭력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나 학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프로이트가 친구인 칼 플리스에게 자신의 연구가 완전히 외면당했다며 괴로움을 호소하자 칼은 “당신의 연구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연구가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 때문에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니 학자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의심하지는 말라.”고 위로했다.

그 후 10년이 지나 프로이트는 히스테리의 원인에 대한 이전의 연구결과를 수정한다. 근친 성폭력은 히스테리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며, 이는 아버지

의 관심을 끌기 위한 딸의 왜곡된 동일시에서 기인한다는 내용이었다. 치료 법까지 스스로 고안해내면서 문제에 직면하려 했던 파펜하임의 노력은 프로이트의 진단에 의해서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분노한 그녀는 결국 평생 살던 도시를 떠나 이름을 바꾸고 여성들을 위한 사회사업가로 변신한다.

## 목숨을 건 도약

여자들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 베르타 파펜하임처럼 교육에 대한 열망, 권위적인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던 여자들이 보인 히스테리 증상은 ‘말할 수 없음’에 대한 고통이 신체로 드러난 결과였다. 그러나 겨우 자기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한 여자들은 외면당하거나 또 다른 모욕을 견뎌내야 했다.

근대의 시작과 동시에 여자의 말하기와 글쓰기가 허용되기 시작했고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도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어떤 말들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었다. 금시기된 말들은 특히 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근대 이전에는 종교에서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형식 속에서만 허용되었고, 근대의 여명기에는 과학의 이름으로 의사 앞에서 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인정되었다. 사제와 의사의 권위 앞에서 고백당한 말들은 다시 교회와 병원 안에서 조용히 묻히거나 죄 혹은 병의 이름이 붙여져 설교와 연구의 형식으로 사제와 의사의 이름을 달고 대중 앞에 공표되는 개별 사례로만 언급되었다. 여자가 공중 앞에서 직접 말하는 것은 금기시되었고, 당사자의 말이 공표되지 못하는 현실은 추문만을 더욱 퍼트릴 뿐이었다.

직접 자신의 성대를 움직여 공중 앞에 목소리를 낸 여성들에 대한 처벌은 아주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었다. 사생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여성 스스로 밝힐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1793년 올랭 드 구즈는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고, 전쟁 시기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지 않았던 절망적인 상황의 여성

들에게 20여건의 낙태시술을 시행한 마리 루이즈 지로는 반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인 1943년에 본보기로 화형을 당했다.

그러나 침묵에 대한 의문이 사람들의 머리 속을 더 크게 차지했던 걸까. 두 번의 세계 대전과 이후로도 계속된 참혹한 21세기 야만의 시대를 살아간 전후 세대들은 입다물고 묵묵히 일하면 언젠가는 행복한 미래가 올 것이라는 기성세대의 가르침을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한다. 그것이 세계사에서의 세 번째 혁명이라고 불리는 68혁명의 시작이다. 모리스 블랑쇼는 68혁명의 핵심은 바로 ‘말할 자유’에 있었다고 강조한다. 무엇이 말해지는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왜 주목할 가치가 있는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다. 68 정신의 핵심은 “모두가 말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말하고 있다.”는 데 있었다. 68혁명 당시의 이런 거대한 ‘공동의 현전’은 분홍빛 미래를 약속하거나 어떠한 것도 책임지지 않는 정신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난장판처럼 보였으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과 국가, 사회 그 너머를 보기 위한 ‘목숨을 건 도약’이었다고 기억한다. 당시 백화점을 테러하고 언론사를 공격하는 등 매우 과격한 68혁명의 주동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구드룬 앤슬린은 1977년 감옥에서 자신의 이름을 역사 속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를 위한 기념비 같은 것은 세우지 말라고 유언한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만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면, 그녀는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말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자살한다. 그녀의 죽음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위해 죽음을 기념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 역설적인 행위였다.

이처럼 여성의 말하기, 특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일은 오랜 시간동안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침묵은 죽음이다’라는 1980년대의 HIV 감염인들의 구호처럼, 침묵은 곧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했다. 침묵을 강요당한 자들은 결코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1971년 4월 12일, 뉴욕의 성 클레망 교회에 처음

으로 300여명의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첫 말하기대회 이후 미국의 반성폭력운동은 대중적 공감을 얻으면서 급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말하기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독일, 남아프리카,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열렸고 대학, 마을회관, 콘서트홀, 교회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도 2003년부터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집단적 말하기가 열리고 있다.

이 글의 제목은 말하기의 의미이지만, 나는 말하기의 의미를 따져 묻는 것을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말하기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가 아니라, 대체 말할 자유를 부정하고 말의 진위를 의심하는 권위를 승인하는 이런 ‘의미’에 대한 질문이 왜 이 시대에도 존속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미 우리는 너무 말도 안되는 말의 홍수가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떤 말들을 다시 감옥에 가둘 것인가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할 것은 ‘말할 자유’ 바로 그 자체에 대한 열정을 되새기는 일이 되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말하기의 의미는 말한다는 것 그 자체에 있다.

# 말하기, 소통과 공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다

##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마도 | 본 상담소 온라인사업팀

‘최근 들어’라는 표현을 쓰기가 무색할 만큼 여러 성폭력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며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언론매체로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요청을 종종 받게 된다. 영향력 있는 매체를 통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주겠다는—꽤나 배려심 깊은 기자들의 제안이 쓸쓸해질 때가 있다. 바로 그들이 바라는 ‘그림’ 때문이다.

언론에서 요청하는 피해자의 상황이란 성폭력 경험으로 인해 상처 입고 고통당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혹은 그러한 상태에서 치유를 통해 ‘보통 사람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모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이미지가 온전히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생존자를 대표하는 ‘그림’일 수는 없기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대답을 반복하게 된다.

### ‘피해자 그림’과 생존자의 이야기 사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생존자는 많은 경우 사건 속의 존재이고 매체 속의 인물이다. 쏟아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사와 미디어를 통한 재현에

서 성폭력 생존자의 목소리와 이후의 삶이 그려지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가 분노해 마지않는 많은 사건의 성폭력생존자들을 떠올렸을 때, 혹시 ‘피해자’라는 이름 아래 뭉뚱그려진 하나의 이미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이미지라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바로 그 ‘그림’에 가까운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만약 다른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다면, 이는 우리 사회에서 생존자의 목소리와 경험을 드러낼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성폭력생존자들은 모두 각자의 역사와 맥락, 환경 속에서 다른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자신의 성폭력 경험에 대한 해석, 이로 인한 영향, 사건의 해결 방법, 치유의 과정도 다르게 나타난다.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거나 대처하지 않는 것만 생각해보아도 그렇다.

이처럼 고통과 좌절,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피해자(라는) 그림’에 얽매이거나 삭제된 경험들을 되살리고자 하는 시도로 성폭력생존자말하기 대회(이하 말하기대회)는 시작되었다. 또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자’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떠올리는 ‘피해자 그림’과 생존자의 이야기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 말하기 대회가 걸어온 길이기도 하다.

### **성폭력 경험 '말하기'가 지닌 치유와 변화의 힘**

1980년대부터 이슈화된 많은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 생존자들은 용기 있는 고백을 이어갔고, 성폭력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의미화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고백들은 관련 법·제도의 제정으로 이어지는 등 실제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루어내었으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성폭력생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많은 생존자들은 상담소와의 상담을 통해 “처음 말해본다”며 성폭력 경험을 털어놓았다. 성폭력 경험을 다시 기억해내어 말하는 작업과 성폭력 경험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되는 과정은 세상의 편견에 움매여있던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재구성하고 자신의 감정과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했다. 생존자의 말하기가 다른 생존자의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이끌어내고, 경험 말하기를 통해 치유와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말하기대회를 시작하는 배경이 되었다.

###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의 개최와 변화**

2003년의 첫 말하기대회는 생존자의 말하기에 대한 용기와 공감에 초점을 맞추었고, 듣기 참여자를 위한 규칙이 마련되는 등 안전하게 자신의 경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그리고 대회 당일,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비난 받을까 두려웠던 경험들이 무대에 오른 말하기 참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쏟아져나왔다.

말하기대회를 통해 생존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아픔과 분노, 그리고 지금까지의 변화와 삶의 화두 등을 이야기했고, 듣기 참여자들은 이를 경청했다. 참여한 이들 모두가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고, 울고 웃으며 생존자의 용기 있는 말하기에 갈채와 환호를 보냈다. 고통과 아픔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생존자로서 숨 쉬는 순간이었다.

한편으로는 해를 거듭할수록 ‘말하기’를 희망하는 생존자의 욕구도 다양해졌다. 말하기대회는 기본적으로 무대에서의 말하기를 통해 듣기 참여자와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진행되지만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를 시도해보거나 듣기 참여자와 소통하고 싶은 욕구도 생겨났다. 더불어 말하기대회를 준비하는 두 어 달 가량의 시간은 참여자 간의 내밀한 소통을 통한

치유의 과정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유대감과 에너지가 바탕이 되다 보니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표현하고 싶은 방법도 많아졌다.

특히 최근 몇 년 간은 음악을 매개로 한 말하기를 나누었다. 첫 해에는 생존자의 이야기를 듣고 뮤지션이 노래를 만들어 공연을 했지만, 이후로는 생존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가사로 쓰고 직접 노래했다. 지난 해의 경우 생존자와 생존자를 지지하는 여성들 열여덟 명이 합창을 통해 우리 사회에 보다 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두자 참여자 스스로가 영상과 연극, 퍼포먼스 등 여러 방식을 통해 공연예술로서의 말하기 대회를 기획해냈다. 성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생존자의 경험과 힘이 다양한 모양새로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 **소통과 공명, 말하고-듣는 자를 넘어서기**

올해도 역시 새로운 참여자들과 다시 새롭게 펼쳐질 8회 말하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두 시간 남짓 진행되는 무대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만큼이나 다양한 모양으로 말하기 위한 시각예술전시다. 뉴스 속의 사례나 대상으로서의 피해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체로서 나의 경험을 그려내고,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뒤엎고 비트는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12월 초,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완성한 생존자들의 여러 경험과 이야기들은 말하기대회의 전시장을 가득 메울 것이다. 다만 비언어적인 생존자의 말하기는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바로 그 지점이 올해 말하기대회의 시작점이다.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형상을 공들여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생존자의 말하기에 대한 올해의 ‘듣기’다. 낯섦과 어려움,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난감함과 막막함은 어쩌면 생존자의 경험과 나와의 거리다. 마찬가지로 그 형상이 나의 (어쩌면 성폭력이 아닌) 경험과 얽혀 마

음 속에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이는 생존자의 경험과 나의 경험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말하는 자는 여기에 자신의 말을 풀어놓았다. 이를 듣고 이해하는 것은 듣는 이의 몫이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다면, 그런데도 알고 싶다면 주위를 둘러보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건네야 한다. 진정 소통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생각이 생존자의 경험과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나의 다른 경험과 생존자의 말하기가 공명했다면, 이 또한 기억하고 드러내야 한다. 성폭력 생존자가 관조하는 ‘그림’으로서만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성폭력 경험이 나와는 무관한 누군가의 비일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어떤 경험과도 비슷하거나 같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다. 따라서 올해 말하기대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듣기 참여자일지도 모른다.

성폭력생존자의 경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생존자의 말하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것을 그동안의 말하기대회를 통해 끊임 없이 전해왔다. 이제는 여기에서 나아가 말하고-듣는 구도에서 벗어나 생존자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의 경험과 이야기로 옮겨오고, 이를 적극적으로 타인과 나누어야 할 때다. 이것이 바로 성폭력 생존자의 말하기와 소통하고 공명하는 과정이며, 이는 성폭력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편견에 균열을 내는 소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소란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크고 작은 균열들이 번져나가다 보면 성폭력의 경험 또한 언젠가 삶의 많은 경험 중의 하나로 스며들어 일상의 이야기로 나누게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공개답변 : 제8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일시** 2011년 12월 1일(목)~6일(화) 오전10시~오후7시

**장소** 공간 루 정동갤러리(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2호선 시청역)

# 자신만의 말하기의 시점

아오리

◦ *상담소의 원고청탁에 잠시 갈등한다.*

*그리고 이내 내 머릿속은 '앞으로 내가 만들고 있는 영화를 홍보하는 좋은 수단이겠구나!' 하는 아주 상업(?)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몇 년간 나는 계속 떠돈다. 사실, 정체성을 고민하고 산 적이 없었는데 성폭력에 관련한 영화를 만들면서 보이지 않게 주변인들이 나에게 묻고, 묻는다.

너는 나의 친구냐? 아니면 그냥 감독이냐? 너는 생존자냐? 아니냐?

어쩌면 무심히 넘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들의 질문에 나는 그들이 원하는 답을 늘 해주고 싶었던 것 같다.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그냥 영상작품을 만드는 사람이길 원했고, 개인 작업이 가능하단 이유로 다큐멘터리를 선택했다. 하늘의 계시 그런 거 없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했는데 딱히, 세상에,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자라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없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작품이 독자인 나의 이야기인 <Are you Married?>이었고, 다음으로 만든 것이 <놈에게 복수하는 법>이라는 성폭력 다큐멘터리다.

<놈에게 복수하는 법>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나는 나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이야기했다. 단지 다큐를 만들고 싶는데 주인공을 찾기는 어렵고, 작은말하기에서 만난 많은 생존자들이 가해자에게 대한 복수를 꿈만 꾸길래, 그들을 위해 만들어 주고 싶었다.

‘내가 시원하게 복수해 줄 테니 힘을 내라!’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는데 ‘왜 사과, 용서, 그리고 치유, 극복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여태껏 성폭력 피해 경험이 나의 삶에는 그다지 불편을 주지 않았다. 문제는 영화를 만들면서 성폭력 피해를 얘기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성폭력피해자 대접을 하는 것에 있었다.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불쌍하게 보거나, 그 이후에 내가 하는 행동 모두를 성폭력의 트라우마로 단정을 지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내가 내 영화에 대한 기획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왜 (울지 않고) 쿨한 척 발표 하나!” 라고 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우는 선배의 모습에 ‘내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까지 계속 슬퍼해야 하는 건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함께 작업한 스텝까지 내가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아서 나는 영화를 만드는 내내 아무렇지 않은 나를 확인시켜 줘야 했다. 첫 영화를 상영한 날 인터뷰를 온 방송국 기자가 했던 “그래서 결혼을 안 하셨냐?”는 이야기에는 그냥 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그래서일까? 1년 내내 영화를 만들면서 아무렇지 않은 나의 모습을 생존자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는데 영화 주인공으로 합당한 것인가?’하는 의문은 계속되었다. 영화의 제출 시기가 가까워졌

고, 가해자를 만나러 간다는 주된 내용의 촬영은 자꾸 미뤄져가던 어느 날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참여자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래! 영화에 말하기대회 참여 과정을 담아보자”

그렇게 그곳에서 6명의 참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과 몇 개월 동안 함께 공연을 준비하면서 자신만의 말하기, 사람들 앞에서의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들을 통해 보게 되었다. 그들 중 누구는 자신의 인생에서 첫 말하기를 시도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는 그 말하기를 통해 자신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놈에게 복수하는 법>이라는 영화가 완성이 되었다. 영화 편집과정 중 큰 난관은 ‘말하기대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 넣을 수 있을까?’였다. 나는 4개월간의 그들과의 즐거운 경험들을 영화에 담아 보려고 했다. 그들의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모두 담기에는 제한된 다큐멘터리의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는 따로 장편으로 만들자!’라는 나만의 합의를 보았다.

2년 동안 여러 차례 영화가 상영되었다. 영화감독으로 나를 봐주길 바랐지만 사람들은 나를 성폭력피해생존자로 대했다. 영화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에서는 “어떻게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냐?”, “당신의 용기에 힘을 보낸다.”등이 주된 질문거리였다.

영화가 계속 상영이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어쩌면 이제 말하기의 시작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나는 나의 경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는데, 영화를 계속 상영하면서 불편해져 갔다.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일까?’

나는 계속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영화 인터뷰 제의가 들어오는 것

은 영화를 알리는 홍보 수단이라 좋지만, 나의 이야기를 내 주변사람이 알게 된다.

“그걸 모르고 영화에 출연한 거야?”

“응……생각 못했어……”

인터넷에 내 영화가 떠돈다는 소문에 사이버신고도 하고 열을 낸다.

“왜, 저작권에 대한 합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니?”

“아니, 나는 내 얼굴이, 그리고 출연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그런 식으로 유통되는 것이 싫어.”

영화를 전국적으로 상영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배급을 하겠다는 배급사의 요청도 거절을 한다.

“왜, 배급하면 수익금으로 빛도 갚고 좋잖아?”

“나는 내가 상영할 곳을 내가 정하고 싶어, 배급사에 맡기면 내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이 내 영화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를 불쌍하게 여길 거야. 그래서 아직도 결혼 못했다고 할 거야. 가뜩이나 결혼 못한 나이 많은 사람들을 따로 모아두고 있는데 말이야.”

상영 후 일 년이 더 지났다.

○○○에서 내 영화를 DVD로 원했다. 피해생존자들의 심리 치료 때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나는 고민한다. 그들이 내 영화를 보고 힘이 난다면, 나는 정말 보여 주고 싶다. 하지만 DVD로 영화를 판매한다면…… 언젠가 그 영화가 인터넷에 떠돌지 모를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요청하신 ○○○의 담당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많이 보게 하려고 만드신 것 아닌가요?”

혼자 말해 본다.

“아니요…… 출연 당시 지금의 경험을 생각 못했어요.”

어쩌면 지금부터 10년이 흐르면 나의 말하기, 영화로 말하기는 세상 어디에 돌아다녀도 괜찮지 않을까. 그 뚜껑을 여는 시기가 필요하겠구나…….

말하기대회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말하기가 이제야 왜 이토록 어려운지를 알 것 같다.

너무 쉽게 생각했다. 말하기를……말이다.

## 영화 광고

2009년 말하기대회에서 만난 친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제는 친족 성폭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가족과 싸우고 있는 다른 한 친구의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친족성폭력은 다른 성폭력에 비해, 믿었던 가족에게 피해를 입었기에 그 상처가 큼니다. 이제 숨겨왔던 가족의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2009년 말하기대회의 슬로건인 Speak Out을 영화제목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말할 때입니다. 이 영화는 성폭력에 침묵, 방관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기대하며 만들고 있습니다. 후원 및 기업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친족성폭력다큐멘터리 SpeakOut 블로그 [http://blog.naver.com/movie\\_so](http://blog.naver.com/movie_so)  
후원계좌 \_ 하나은행 771-910030-53607 최미경



# 함께 행복하고 싶어서 찾아나선 길, 나의 말하기

한새

## interview

---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한새'라는 별칭으로 살아가는 그녀와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로 인연을 맺은 지 어느덧 6년이 되었다.

비가 많이 내리던 여름날 오후에

상담소 지하에 있는 누룩한 방에서 그녀를 만났다.

한새는 현재 특별히 공을 많이 들여 키워낸

‘에비’ 성교육 강사인 아들과 알콩달콩 살면서,

열혈 성교육 강사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생존자말하기대회 홍보대사 역할을 자청하고 있기도 하다.

그녀와의 멋진 말하기,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2011년 7월 13일 오후 4시, 상담소 모임터

인터뷰어 및 정리 : 이윤상

---

## 한국성폭력상담소와의 만남, 그 고마운 인연

한국성폭력상담소하고는 언제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6년 전이던가…… 성교육 강사로 강의를 한 지 3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는 초보강사는 아니고 뭔가를 알기는 아는데 아직 어설프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던 시기였죠.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도 즐겨찾기에 넣어 놓고 매일 방문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상담소에서 하는 제3회 성폭력 생존자말하기대회 광고를 보았죠. 그때 혜화동에서 행사를 했는데 제가 듣기 참여자로 신청해서 참여했어요. 그 무대를 보고 엄청 울었어요. 무대는 충격이기도 했고,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 단체도 너무 고마웠어요. 늘 오고 싶은 단체였어요. 3회 무대를 보면서 나도 저 무대에 서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4회는 열린 야외 공간에서 하는 것으로 기획되어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4회 때는 자원활동을 했어요. 행사 당일 날 길거리 발바닥 화살표 붙이는 자원봉사, 그런 거 했어요. 그리고 5회 무대에 서게 된 것이죠. 2007년.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말하기대회는 매해 빠지지 않고 꼭 듣기 참여자로 함께 했어요.

### 나는 말하기대회 홍보대사!

그럼 2년을 준비해서 무대에 선 거네요. 무대에 꼭 서보고 싶었다고 했는데, 무엇이 한새를 그 무대로 이끌었던 건가요?

3회 무대를 보면서, 거기에 선 사람들이 자신감에 차 있고, 당당해보였어요. 함께 하는 이들이 큰 소리로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정말 큰 울림이 있었어요. 바로 나한테 소리 같았고……. 나도 저렇게 극복한 사람의 대열에 끼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남들이 말 못한 그런 것들을 그분들은 말을 한 것이 부럽고 존경스러워서 나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서 실제로 무대에 섰는데, 처음에 기대했던 그런 느낌이었나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3회 때 무대에 섰던 분을 작은말하기에서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무대에서 다 말하지 못하는 삶의 세세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 분도 여러 가지 기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또 기복을 겪지만 잘 극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도 기복이 있지만 기복의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죠. 그게 탄성이죠. 힘든 얘기를 들어주는 상담소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이게 ‘나만’ 겪은 것이 아니라 ‘나도’ 겪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 와서 알게 된 것이 너무 소중한데요. 그걸 알게 되면서 나 자신을, 내 경험을, 그리고 세상을 더 너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바로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준 상담소, 말하기대회가 아주 신선하고 강한 충격이었던 거죠. 저는 강의에서 작은말하기, 큰 말하기에 대해서 꼭 얘기해요. 얘기하면 그런 것이 있냐며 다들 놀래요. 내가 홍보대사를 하고 있다니깐요.

**한새는 평소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 강의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강의 들을 때는 다 수긍하는 것 같지만 질문을 받아보면 그런 생각들이 드러나죠. 유혹한거 아닌지, 한 번 당하고 나면 또 당한다던데 피해자가 처신을 잘못된 게 아닌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사건 얘기하다보면 이런 인식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피해자는 무력하고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전제하는 거. 피해자 하면 자살, 결혼기피 이런 생각을 떠올리더라구요. 모든 사람들의 의식변화로 이런 피해자 후유증을 탈피시키고 싶어요.

## “나의 말하기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버라이어티 생존 토크쇼〉라는 다큐 영화에 출연하고 나서 더욱 많이 얘기하게 된 거 같아요. 말하기 무대는 그 날 왔던 사람들만 보는 거지만 영화는 여러 번 상영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니깐요.

**영화가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무서운 거기도 하고요. 영화, 말하기가 한새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죽기 전에 할 수 있어서 고맙죠. 하지만 영화 찍고 나서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열심히 홍보를 안 해요. 강의에 가서도 내가 생존자로서 영화에 출연했다는 얘기는 별로 안했어요. 그러다가 2년 전에 서울시 교육청 강의 때 어떤 분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우연하게 처음으로 얘기하게 되었어요. 영화이야기와 세상에 관심 있고 꼭 보고 싶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그만 말하고 말았지요.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말을 하고 싶더라구요.

내가 얘기를 하면 긍정적인 파장이 있을 거라는 안정감이 있었어요. 얘기하고 나니깐 박수를 받기도 하고 지지받는 느낌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구나 하는 것도 느껴졌어요. ‘강사’가 얘기하는 거랑 ‘생존자’가 얘기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생존자가 아니라 강사로 봐주기를 바라는 거 같았어요. 생존자라고 얘기하면 괜시리 ‘나를 무서워하지 않을까,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재능인으로 선정되었다고 상장이 왔어요. (어머!)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 뽑혔다고요……. 너무 놀랐어요. 갑작스럽게 얘기하게 된 건데, 첫 번째 얘기한 거 치고는 결과가 좋은 거죠(웃음). 그때 이후로 힘들지만, 간간히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교육청 강의나 여성단체 강의 같은 곳에서 한 여섯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아주 가려서 조금만 한 거죠. 하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

으로 얘기하려 해요. ‘죽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겠다, 말을 많이 해야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보다는 용기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8년 간 강의를 해왔지만 내 강의를 들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앞으로 10~20년을 열심히 강의한다고 해도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강의를 많이 했는데도 사람들이 아직도 안 바뀌었고……. 그러니 용기를 내어 더욱 열심히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나의 사명감이고 살아갈 이유이고, 내 경험이 헛되지 않는 길이라 생각해요.

※ 위 인터뷰의 전문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블로그 [www.stoprape.or.kr](http://www.stoprape.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남은 말들

달가루

내가 너에게 듣고 싶은 말  
아직 다 듣지 못한 그 말  
날 있는 그대로 억압하지 않고  
볼 수 있게 하는 마법의 그 말  
그 말을 나에게 해주

미안해 내 잘못이야  
미안해 내 잘못이야  
용서해 그리고 행복해져라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  
아직 다 하지 못한 그 말  
시간처럼 흐르고 또 흘러서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말  
이제는 말할거야

괜찮아 나 많이 아팠어  
괜찮아 나 많이 아팠어  
용서할게  
그리고 너도 행복해져라

※ 위 글은 달가루 님이 제7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에서  
부른 곡의 노랫말입니다.

# 2

## 쟁점과 입장

일령이는 여론, 쫓아가는 수사·재판\_도가니와 고려대  
여성가족부를 위한 불편한 변명  
침묵의 카르텔, 그들은 침묵했지만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 대안읽기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담

프리즘 [일터, 행복이라는 '꿈' 차별이라는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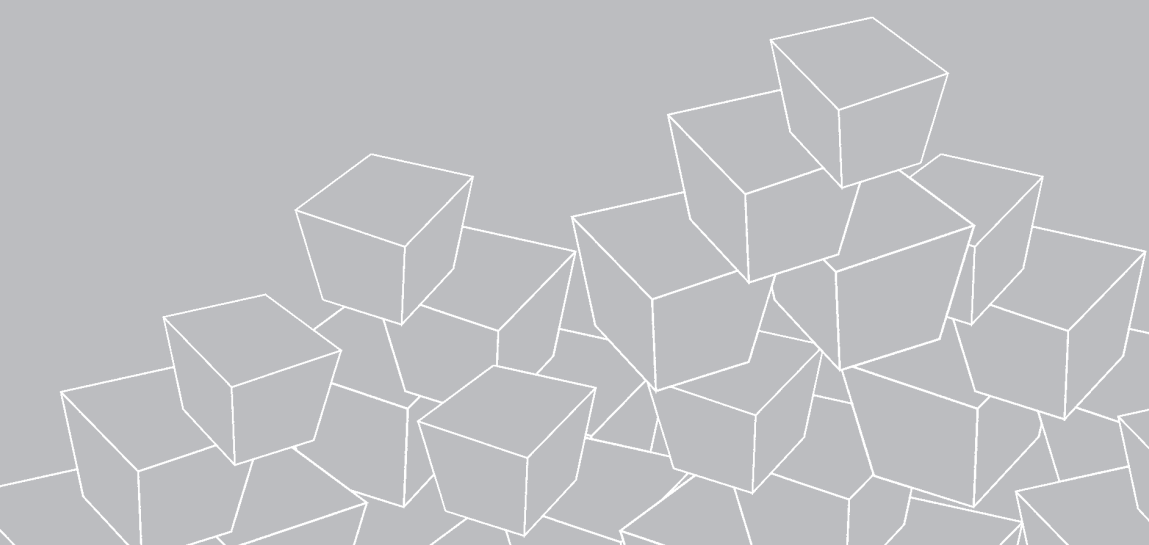
노동의 세계로 들어간 여성의 일과 삶  
참 짧고도 길고 길고도 짧은 '우리'들의 하루  
작은꽃 아픔으로 피다

## 통계 이야기

통계로 본 직장내 성희롱 피해 실태

## 성문화 읽기

결국, 하고 싶은 말\_사후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논쟁을 보며



# 일렁이는 여론, 쫓아가는 수사·재판

## 도가니와 고려대

이윤상 | 본 상담소 소장

고려대학교 의대생 성추행 사건으로 연일 언론이 떠들썩하더니,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자 광주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관심으로 언론이 바빠 이동하였다. 며칠 전에는 건국대 학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인터넷 상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려 가해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까지 세상에 알려졌다.

수많은 ‘도가니’ 사건을 만나며 절박한 심정으로 후원금을 유치하여 상담소를 꾸리고 휴일도 없이 24시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일선에서는,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부디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싸늘한 반응만을 견뎌온 것이 오래다. 그래서일까? 단 한 편의 영화가 갖는 위력에 ‘이제라도 알려졌다으니 다행이다’라는 마음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뭐하고 다 끝난 뒤에 이제와서!’라는 씩씩한 마음도 숨길 수가 없다.



##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법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해야 한다. 주목하는 눈이 많기 때문에 양형이 달라진다면, 주목하는 눈이 사라질 경우에는 언제든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고려대학교 의대생 성추행 사건은 ‘가해 학생 출교’, ‘구형보다 높은 중형 선고’ 등으로 연일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내렸다. 이것이 뉴스거리가 된다는 사실자체가 이런 결과는 쉽게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출교’나 ‘구형보다 높은 선고’는 학교당국이나 사법부의 공평무사한 판단이라기 보다는 많은 이들의 감시와 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해당 사건을 통해 의사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의사 자격이 지나치게 허술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여 최근 한 의원실에서는 성폭력 범죄자는 의사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군이 의사뿐인가. 성폭력 범죄 전력이 특정 직업의 자격 여부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면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야 마땅하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의 분노를 바탕으로 해당 직업군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성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광주인화학교 사건은 2005년도에 사건이 알려져 2008년 항소심 판결로 일단락 될 때까지 3여년동안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다. 성폭력 혐의로 직위 해제되었던 교사들은 복직되는가 하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촉구했던 교사들에게는 중징계를 내리는 어이없는 일들이 이어졌다. 250일에 가까운 천막농성에서부터 각종 성명발표와 기자회견까지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가해자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채 사라져갔다. 영화 ‘도가니’로 이 사건이 우리 결

에 다시 돌아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교육당국은 뒤늦게 해당 법인에 시설을 위탁한 절차를 취소하고 특정 감사를 통해 여전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가해자 교사들을 징계하였다. 교육 당국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 사건 따라 만들어지는 성폭력 대책

정부나 정치권의 움직임도 안타까운 지점이 한둘이 아니다. 성난 여론을 의식해서 부랴부랴 대책을 만들어 내놓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빚어진 문제가 많다. 크게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건유형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근시안적이고 자극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기 일쑤고 이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일례로 최근 몇 년 사이 아동성폭력 사건들이 대거 이슈화 되자 아동성폭력 범죄의 형량만을 높이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만 비친고죄 대상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가니’ 열풍으로 국무총리실에서는 10월 7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친고죄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영화를 통해 ‘합의’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공분하였지만, 사실 여성계에서는 짧은 고소기간, 합의종용에 따른 피해, 범죄자 처벌에 대한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을 제기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차 주장하여 왔다.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성계의 오랜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면 친고죄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 아닌가. 또 안타까운 성인 피해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 되어야만 그때 가서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대책으로 내놓을 것인가.

## 원칙에 따른 처벌과 대책

사실 상담현장에 있으면, 고려대 의대생 사건을 닮아 있는 학내 사건들은 수도 없이 많다. 후배를, 제자를 성추행하고도 버젓이 학교로 돌아와 활보하는 가해자들이 어디 한둘인가. 학교에서, 여타 시설에서 교사나 시설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는 사건도 너무나 많다. 하지만 ‘○○사건’처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의 피해자들은 ‘여성이 유발한 것 아니냐’, ‘여자가 왜 남자들과 여행을 갔냐’는 식의 통념과 편견에 시달리며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상 해결책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국 명예훼손 피소라는 위험마저 무릅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일일이 다 기사화 할 수도 없고, 소설이나 영화로 제작할 수도 없다. 모든 피해자가 명예훼손과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공공연하게 알려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성폭력은 눈길을 끌 수 있는 핫 아이템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폭력적인 사회구조와 문화를 방증하는 사회 문제다. 사회 문제는 마땅히 원칙과 질서,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 피토하는 절규가 아니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가 지켜지고, 가해자가 죗값을 치루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도 큰 바람일까.

# 여성가족부를 위한 불편한 변명

특하면 “여가부 없애라”, 여성 인권 정책의 실종을 염려하다

토리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여성가족부에 대한 불신과 비난의 목소리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최근 다시 여성가족부 철폐 논란이 시작된 계기는 다름 아닌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 논란’ 때문이었다. 지난 8월 25일과 9월 8일, 국내 두 곳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자사 제작 곡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선정한 것에 반발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무효 및 정지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항소를 포기하였고 음반 심의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번 일로 여성가족부는 대중가요의 장르적 특성 조차 이해 못하는 보수적인 ‘꼰대’의 대명사로 조롱거리가 되어야 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업무만이 아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사건 대책위가 성희롱 피해 여성의 복직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자 ‘직장내 성희롱은 예방업무만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을 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실망을 안겨주었다.

여성가족부는 이 모든 일들이 정부 기관의 업무 절차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철없는 요구 때문이라고 판단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이 반복될수록 여성가족부는 점점 정부부처로서의 기대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 자연스럽게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러울 정도이다.

### **관점과 전문성 없는 정책과 집행이 만든 결과, 누구를 탓하라**

2001년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꼴페미'라는 비하 논조로 여성부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가 된 지금까지 집권했던 어떤 정부도, 그들이 말하는 '꼴페미'의 시각으로 여성부 정책을 기획했던 적은 없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주요 정책 수혜 집단으로 고려하는 대상을 보더라도 '이성에 가정 내 돌봄노동자'로서의 여성이며, 결코 성별 계급 사회의 피착취자 위치에 놓인 여성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녀동수=성평등'이라는 허구적인 개념들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만 위해 존재하는 역차별 정부부처'라는 관점으로 여성부를 바라보게 만들었다.

여성부가 출범한 것은 분명 성별 권력에서 기인한 차별에서 발생하는 개인들의 부조리한 삶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돌보겠다는 의도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애초의 취지를 망각한 채 '여성'과 '가족'을 동일한 범주에서 다루어야 할 '복지 대상'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의 가족, 보육 업무에 이어 2010년에는 청소년 업무까지 여성부로 이관시켜 지금의 '여성가족부'로 만들었다. 만약 여성부가 '평등이란 무엇인가, 젠더문제란 무엇인가'를 더욱 고민

하고 구체화시키면서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여성 정책에 반영시켜 나갔다면, 젠더 정책과 관련된 총체적인 관점과 전문성을 수립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했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부 폐지’라는 여론이 이렇게 쉽게 등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정부의 전문성 없는 부처 운영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 **여성 인권 보장과 차별 철폐를 외치던 여성부는 어디로?**

여성가족부와 가까운 인연(?)을 맺고 있는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로서 다소 억울한 마음도 든다. 이번 ‘청소년유해매체물’ 논란을 빚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청소년 업무가 이관되면서 2010년에 여성가족부 산하로 변경된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 불신들이 결국 여성가족부의 철폐로 이어진다면, 성폭력을 비롯한 젠더 문제를 총괄할 부처가 실종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해진다. 물론 타 부처에 ‘젠더 정책 전문가 집단’이 형성되어 지금보다 더 나은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그러나 성별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독립된 부처가 마련된다는 것은 국가 정책의 비중 면에서 전혀 다른 의미다. 여성부가 설립된 것은 분명 성별로 인한 폭력과 차별이 난무하는 한국사회의 획기적인 변화였다. 이러한 시도가 불과 10년 만에 존폐위기에 놓인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은가.

###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라!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철폐하라?**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삶에 비추어볼 때 여성가족부 폐지는 우리에게 위협과도 같은 말이다. 성별로 인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정부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만들어갈 길이 닫힌다는 의미다. 물론 ‘사회복지정보시스템망’

과 ‘인센티브제도’ 논란 등 최근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정책의 지향점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일·가정 양립’이라는 기조로 실시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 정책과 가족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더 이상 ‘여성’을 유희인력으로 보고 소극적인 성별화된 노동 정책을 ‘평등 고용 정책’으로 탈바꿈시키지 않도록 하려면 여성가족부 스스로 가장 고민해야 할 문제는 여성 인권이다. 여성가족부의 전신이 보건복지부도 노동부도 아닌 ‘여성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처에게 ‘성차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젠더 문제 전반으로 나아간 내실 있는 정책까지 요구해볼 수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여성가족부 폐지를 함께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성별화된 권력과 차별, 이를 근거로 한 나쁜 문화와 범죄들이 도처에 존재한다. ‘성폭력피해자는 안타깝지만 여성부는 싫다’는 논리는 한편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인 현실, 여성 다수가 성폭력의 두려움을 감내하거나 외면하며 뛰어드는 신자유주의 생존 경쟁 속의 갖가지 피해와 고통들을 부정하는 시각이다.

### **여성가족부 스스로 초래한 논란, 여성가족부의 변화만이 잠재울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흐름이 여성가족부 철폐로 귀결된다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예방하고 구제하는 인권 정책의 향방은 갈 길을 잃을 것이다. 성폭력 관련 정책을 비롯한 젠더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한국사회의 차별적인 성문화를 바꾸어갈 길은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자신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며 찾아온 폭력 피해생존자 앞에서 업무지침을 읊어 내리며 ‘왜 당신을 도와줄 수 없는가’를 변명하기 전에, 왜 이 사람들이 여성가족부를 찾아오고 있는지 깊이 사고해야 할 것이다. 젠더와

인권의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한 사회의 반복되는 폭력의 문화를 증명하는 척도로써 접근한다면, 여성가족부에서 인권 업무는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별 권력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민들에게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다.



# 침묵의 카르텔, 그들은 침묵했지만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김현아 | 한국어성단체연합 부장(정책팀 정치담당)

2011년 8월 31일, 국회 역사상 최초로 성희롱 국회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리고 30여분 만에 부결됐다. 이미 국회 내 윤리기구에서 제명안을 의결했고, 법원에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사실상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최종 부결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또한 당일 “너희 중에 죄 없는자, 돌을 던지라”는 성경문을 인용하여 강 의원을 옹호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이제 약간의 시간이 흘러 들끓었던 여론은 잠잠해져 가고 있다. 나는 강용석 의원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시점부터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되기까지 지난 1년 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며 비윤리적 행위를 한 동료 의원을 끝까지 지켜준 ‘침묵의 카르텔’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되기까지, 그 쉽지 않았던 과정

이번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반대표로 부결됐다는 사실은 18대 국회의 인권의식이 매우 부끄러운 수준임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강용석 의원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시점부터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안건의 처리가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8월부터다. 강용석 의원은 여대생에게 “아나운서 되려면 다줘야하는데 그래도 하겠느냐?”, “여성 로비스트 최후의 무기는 몸” 등의 심각한 성희롱 및 아나운서 직종에 대한 성적비하발언을 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회부됐다. 이때부터 국회는 절차상의 문제, 정족수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며 징계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작년 8월, 국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운영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는 자문위 위원 구성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뤄 결국 자문위의 결과는 8개월만인 올해 4월에야 나왔다. 다행히 민간의 관련 학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만장일치로 ‘제명’을 발표했고, 그로부터 또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의결하기까지 위원회 위원들은 매번 안건 처리에 미온적이었다.<sup>1</sup>

그 과정에서 여성단체들과 아나운서연합회, 청년유권자연맹은 국회가 조속히 제명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윤리특위 각 위원들에게 보내는 수차례의 의견서 제출과 면담요청, 기자회견,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그리고 전체 297명의 국회의원에게 본회의 출석여부와 제명에 대한 찬반 여

---

1) 강용석 징계안 처리에 유일하게 미온적이지 않았던 손범규 징계심사소위원장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지난 5월 6일 손 위원장이 결단하여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징계안 처리의 막혀있던 물꼬를 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를 묻는 질의서 발송까지, 여성·시민단체들의 끈질긴 제명 촉구활동이 있었기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했다. 지난 1년간의 과정은 여론의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들과의 지난한 ‘밀고 당기기’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침묵의 카르텔, 누가 침묵했는가?

국회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이들이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명안을 부결시킨 18대 국회의원들은 과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가? 성희룡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국가 이익’을 우선했기 때문인가?

18대 국회가 보여준 ‘동료의원 감싸기’는 분명한 침묵의 카르텔(cartel)이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혜는 현역의원 1인당 1억 1700만원에 가까운 연봉 외에도 대략 200여개에 이른다. 게다가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임기가 끝난 전직의원들은 월 120만원의 ‘종신 연금’을 받는다. 18대 국회는 이러한 국회의원의 엄청난 특권을 강용석 의원이 유지하도록 ‘담합(cartel)’한 것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성경 문구를 인용하며 제명에 대한 반대논리를 펼 때, 그 자리에 있던 의원 중 어느 누구도 반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한나라당 의석에서 “잘했어, 살신성인(殺身成仁)했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국회가 여전히 견고한 권력의 카르텔(cartel)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오랜 성희룡·성추행 전력을 가진 ‘구제불능’ 정당이라고 치더라도, 100명의 시민방청단을 밖으로 내보내고 안건을 비공개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회의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합

의하에 징계에 관한 건을 공개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야당의 미온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 날 본회의장에서 여성의원들조차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강용석 의원이 "여성위원의 외모는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낫다. ○○○의원은 얼굴은 예쁘지만, 키가 작아 볼품이 없다."는 등 여성위원을 비하하는 성차별적 발언까지 했는데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조차 애써 외면하면서 남성의원들과 함께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실망을 넘어 그들이 과연 무엇하는 사람들인지, 여성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할 자격을 논할 만한 사람들인지,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지게 만든다.

### **그들은 침묵했지만,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얼마 전 모 방송사에서 대한민국의 '정의(Justice)'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설문조사 참여자 중 단 5%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나는 이번 18대 국회의 성희롱 국회의원 제명안 부결을 보면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힘, 즉 '부정(不正)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것'이다. 용기있는 발화(發話)가 많아지는 것이 점차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가는 것이라 믿는다. 2011년, 그들은 침묵했지만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답

성폭력 예방교육, 인권에 대한 감수성부터 길러야

김두나 | 본 상담소 기획조직국장

## 성폭력, 저항은 위험하다?

최근 몇 년 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면서 성교육이나 성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도 과거에 비해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교사를 위한 성교육 매뉴얼》을 출간했다. 수업 샘플과 학생들을 위한 활동지 등 비교적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담고 있는 이 매뉴얼은 학생들과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난감한 교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매뉴얼이 출간되자마자 매뉴얼에서 제안하고 있는 성폭력 대처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일어났다. 문제로 지적된 내용은 《중학교 교사를 위한 성교육 매뉴얼》중 6장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친’ 방법도 불사한다’의 한 부분이다. 이 장에서는 ‘일찍 귀가하기’, ‘안돼요, 싫어요 라고 말하기’ 등이 수동적이며 성폭력 예방에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거친 방법을 생각하고 연습해볼 것을 제안한다. 그 예로 ‘1,000m 밖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악쓰기’, ‘남성 급소를 발로 차서 연습하기’, ‘자신에게 맞는 호신용품 늘 휴대하기’를 들며, 눈으로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직접 몸으로 익혀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성폭력에 대한 이러한 대응방식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부추기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존의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생명을 담보로 하는 대처법을 알려주는 것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에 앞서 대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 피해자가 죄책감을 갖게 될 것이 우려되니 매뉴얼 배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몇몇 언론에서는 여학생들의 육체적 대응이 오히려 위험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응 효과를 반문하기도 했다.

사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여전히 ‘야한 옷을 입었다’거나 ‘밤늦게 다녔다’며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 여성에게 전가하는 사회에서 성폭력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저항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피해 여성의 책임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실제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많으며, ‘왜 저항하지 않았냐’는 역공격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는 저항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해당 매뉴얼에서 제안하는 ‘거친 방법’은 여러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무리한 방법일 수도 있다.

### **성폭력 예방교육, 무조건적 통제와 보호를 넘어야**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 성폭력 하려던 성인 남성을 가격해 위기를 모면한 여고생의 이야기나 은행 강도를 때려잡은 이십대 은행원의 활약을 전해 듣는다. 십대들에게 이 여성들처럼 적극적으로 반격해보라는 조언은

위험하기만 한 일일까? 여러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격의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것은 침대를 무기력하고 취약한 피해자의 위치에 고정시켜, 스스로 성폭력에 맞설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아예 포기해버리게 할 수도 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힘의 차이 때문만은 아니다. 성폭력은 남성 가해자가 자신보다 힘도 약하고 당연히 저항하거나 반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리고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여성 피해자를 만나는 순간 발생한다. 따라서 성적 공격상황에서 피해자로 예상되는 여성이 가해자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반응, 즉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반격한다면 상황은 가해자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침대들도 미리 몸과 마음을 단련해 침대는 어리고 약할 것이라는 전제를 뒤집는 행동으로 성폭력의 각본에 균열을 낸다면, 충분히 성적 공격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성폭력 예방을 지나친 통제와 보호의 문제로 접근하여 몸가짐을 조심시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침대들이 성적 공격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성폭력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성폭력 예방교육, 평등하고 평화로운 소통과 관계 맺기부터**

침대들이 무기력하고 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의 주체가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우선 몸과 마음의 힘을 키워 성적 공격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싸움의 기술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성폭력이 타인의 신체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임을 알고,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에 맞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을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는 남성중심적 사회, ‘여성다움’

을 강요하며 여성을 무기력하고 약한 존재로 규정하는 고정관념, 폭력을 허용하고 묵인하는 사회를 문제제기하고 변화로 이끄는 것이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사회는 십대들과 함께 나 자신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이들의 몸과 성, 감정을 존중하고 긍정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와 맥락을 알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평등하고 상호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맺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최근 몇 년간 성/인권교육프로그램 <인권감수성교실>을 기획했다. <인권감수성교실은> 십대의 성에 대한 무조건적 보호주의를 넘어, 십대들이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적으로 관계 맺고 평화롭게 소통하는 것을 강조하며 통합적 인권의 차원에서 성/성폭력 이슈에 접근한다. ‘나다움’을 긍정하기/우리 안의 성 고정관념 찾기/차별과 폭력의 구조 이해하기/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기르기/공동체의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기 등을 통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소통하며 성폭력 없는 관계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권감수성교실>에서와 같이 성/폭력이 발생하는 맥락과 원인을 알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며, 자신과 타인을 긍정하고 존중하는 감수성을 기르는 과정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인지력뿐 아니라 대응력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성폭력이 개인의 잘못이 아님을 알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성폭력을 경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임파워링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바란다면 십대들의 몸가짐을 조심시키고 공포를 확장하는 대신 적극적인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십대 개개인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각각의 위치에서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야한다. 그래서 십대들이 폭력적인 사회를 평등하고 평화롭게 바꾸는 변화의 주체가 된다면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도 가능할 것이다.

## { 일터, 행복이라는 ‘꿈’ 차별이라는 ‘현실’

일터는 여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일터에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벌 뿐만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일터 문화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임금차별, 성폭력(성희롱)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 이처럼 명백하게 나타나는 성차별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은 여성의 몫이라는 무언의 합의,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여성은 일에 매진하지 못하니 비정규직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무형의 압력, 나의 일 때문에 아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체모를 불안감은 바로 우리 일터 문화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청하는 성인(20세 이상)의 1/3 이상이 직장 관계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다. 가부장적 일터 문화가 이 수치와 무관하지 않다. 여성들에게 일터는 자신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공간인 동시에, 온갖 모순과 딜레마, 심지어 폭력까지 경험하는 고통의 장소이기도 하다.

반성폭력 3호 <프리즘>에서는 이 아이러니를 직면하겠다는 생각으로 '일터'를 들여다본다. 김원정의 글에서는 일터를 규율하는 남성권력의 메카니즘과 남성 가장의 서사가 어떻게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왜곡하고 삭제하는지 명쾌하게 분석한다. 최근들에 사회에서 내놓는 일·가정양립 정책이나 여성친화적 기업문화도 일터를 규율하는 남성중심적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지는 강위의 글에서는 글쓴이의 일과를 따라가면서 여성 노동자의 일상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성들은 일터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단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 없는 곳에서 나름의 정답을 찾아나간다. 마지막으로 성희롱과 이에 따른 부당해고로 현재 천막농성을 진행 중인 작은꽃의 글에서는 한 장의 유인물이나 몇 개의 피켓에 다 담을 수 없었던 하청업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피해경험을 절절히 이야기 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성희롱을 가능하게 하는 남성중심적 일터문화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 노동의 세계로 들어간 여성의 일과 삶

김원정 |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88만원 세대와 재벌3세, 계급장 떼고 붙는다’는 화끈한 문구로 소개된 드라마 ‘보스를 지켜라’가 인기를 끌었다. 한 때 좀 놀랐던 거침없는 여자 주인공 노은설이 힘들게 구한 직장에서 맡은 일은 본부장 차지현의 비서. 딸리는 스펙 때문에 타박을 받던 노은설은 특유의 날라리 근성으로 난관을 헤쳐 나가며 두 재벌3세 남자들에게 애정공세까지 받게 되었다. 연애 문제로 회사에서 잘리고 싶지 않다며 매달리는 남자 주인공들에게 주먹까지 날리던 노은설은 우여곡절 끝에 차지현과 연인이 되었다. 또 하나의 신데렐라 스토리가 완성되는 과정이었지만 서로 의지하고 다그치며 업무를 완수해가는 직장 동료이자 연인인 그들의 관계는 쓸쓸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왜 하필 들이대는 남자가 재벌이냐며 괴로워하던 노은설의 말대로 그 상대가 훈남 대리였어도 흐뭇하게 지켜볼만한 사내 연애 스토리다.

## 일터 안의 관계를 규율하는 남성 권력

남성과 여성 모두 직장생활을 지속하려면 동료, 상사-부하직원, 멘토-멘티 등의 관계를 잘 맺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 속에는 이성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호의나 관심, 심지어 연애 감정이 개입되기도 한다. 다른 성별 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관계 역시 인간 관계의 일종이기에 늘 공적/사적 관계의 모호한 스펙트럼에 위치해 있기 마련이지만, 조직은 철저한 공사 분리를 강조하며 사적 관계들은 개인들이 감당해야 할 영역으로 밀어낸다. 그러나 막상 남녀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늘 여성의 '처신'이 문제가 된다. 연애하자고 들이댄 건 차지현이지만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돌자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은 노은설이다. 공적 관계에서 남녀 간 사적 관계의 면면이 드러날 때 가해지는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비난은 관계를 규율하는 조직의 질서가 남성 권력에 다름아님을 보여준다.

성희롱 피해를 입었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직장을 잃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여성의 사례도 전형적이다. 한두 번 참고 넘어가 준 직장 상사의 성적 농담은 '너네 집에 가서 자고 싶다'는 섬뜩한 전화로 되돌아 왔지만, 성희롱을 공론화하는 순간 피해자는 조직의 품위를 훼손한 장본인으로 낙인찍혔다. 지난 상반기 민주노총이 여성조합원 1,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여성이 무려 39.4%에 달한다. 그녀들은 남성 상사나 동료들과 원만한 '공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때론 극심한 모욕감도 견디며 버텼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들의 노력은 관계를 규정하는 남성 권력에 의해 제 맘대로 해석될 뿐이다. 여동생 같아서, 애인 삼고 싶어서, 그냥 친해지고 싶었다며 공적 관계를 사유화하는 남성은 용인되지만, 누군가의 성적 대상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여성은 조직 질서의 파괴자가 된다.

## 어머니 노동으로 진입할 수 있는 노동시장

남성적 질서로 작동하는 노동의 세계에 여성은 동등한 노동자의 지위로 편입될 수 없었다. 여성은 공적 관계 안에서도 어머니, 아내의 역할을 요구 받으며 그것은 그녀가 맡은 업무의 일부가 된다. 어릴 적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차지현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보살피고 치유하는 노은설의 ‘어머니 노릇’은 비서로서 그녀가 해야 할 임무다. 그러면서 생겨나는 연민의 감정도 뛰어난 여비서라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무려 아이비리그 출신의 남성 인재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자질이다. 보살핌과 감정노동은 많은 여성들에게 노동 그 자체이지만, 상대가 원하는 것을 세심히 살피며 케어하는 여성의 수고는 직장 내 관계들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다. 많은 경우 여성의 직업 능력은 이러한 그림자 노동을 수행하는 능력만으로 환원되기도 한다.

근대사회의 출현 이래 일터는 남성 임금노동자들만의 세계로 여겨져 왔지만 여성이 완전한 외부자였던 적은 없다. 그녀들에게 ‘여성적’ 노동으로의 제한적 진입만이 허용되었을 뿐이다. 성별직종분리는 이처럼 성별화 된 노동시장의 단면이다. 2009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서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직업은 세가지 - 보건의료, 사회복지·종교, 음식서비스 관련직이다. 가정 내 여성의 역할로 여겨지는 보살핌과 가사노동은 여성에게 활짝 열린 노동시장의 진입로인 셈이다. 이러한 노동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에 직무 가치나 숙련에 대한 보상을 복잡하게 따질 여지도 없다. 또 여성노동자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인 현실은 노동시장의 수직적 층위 역시 성별화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상위층을 떠받치고 일터에서도 ‘핵심’ 업무를 ‘보조’하는 여성들의 위치가 성별 임금격차 39%의 간극을 설명해 준다.

## 가장의 노동 서사에서 지워지는 여성의 일과 삶

이러한 현실을 앞에 두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왜 일하는가. 나에게 일자리라든 무엇인가. 누구나 단순명쾌하게 ‘돈벌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이’는 남성 가장의 서사로 의미화 되어 왔다. 자식들 먹여 살리고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벌이는 그 수단이 사회 규범에 다소 어긋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눈물겨운 노동자의 인생 그 자체다. 반면 여성의 벌이는 그렇게 설명되지 않는다. 자아실현 따위 고상한 수사들을 제쳐 두면 단순하다. 젊은 여성은 명품 가방 사려고, 나이든 여성은 반찬값 벌려고 병든 가장을 대신하여 일터에 나온 어머니 정도 되어야 노동자의 서사에 근접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사력을 다하는 남성들만의 전쟁터로 노동의 세계를 규정한다. 그러한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노동자는 이 세계의 룰을 깨는 것이다.

노동자이면서 자녀를 낳아 키우고 집안의 온갖 잡사들을 챙겨야 하는 여성이 그런 존재다. 여성노동자의 임신은 잠시 거쳐 간 일터를 떠나 가정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2007년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출산 당시 정규직이었던 여성 중에서도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한 경우는 48%밖에 되지 않는다. 출산 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도 어머니이자 노동자로서 이중생활을 하는 여성은 이질적인 존재다.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전체 휴직자의 2%에 불과하다. 이런 환경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웬만한 독심으로는 버틸 수 없다. 소위 잘나가는 직장에서 10년 정도 커리어를 쌓아온 여성들도 이 시점에서 일이나 아이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악착같이 과장까지 올라왔지만 그 이상의 위치에 오르는 건 쉽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늘 부족하기에 엄마로서 자신을 자책하다 보면 ‘왜 이리고 사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새로운 일과 삶 그리고 관계를 위하여

일터에서는 개인의 삶을 철저히 배제하라면서 사적 영역의 젠더 관계를 공적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분열적 노동세계에서 ‘여성노동자’라는 정체성은 언제나 혼돈 상태다. 이런 암울함은 과연 지금 직장에 첫발을 내딛는 세대에겐 옛날 옛적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삶을 배제한 노동도 노동을 배제한 삶도 이제는 남녀 모두에게 불가능해 지고 있다. 대다수 젊은이들은 맞벌이를 원하고 자녀와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양육에 대한 젊은 아빠들의 관심도 늘어난 것 같다. 남성이 점유하고 있던 전문·관리직에 진출하는 여성들의 선전도 눈에 띈다. 아이의 어머니이자 조직의 리더로 자리 잡아가는 여성들이 주목을 받기도 한다. 관계지향적 의사소통과 같은 ‘여성적’ 조직 원리와 일·가정 양립 문화를 강조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스마트워크, 원격근무나 유연근무제는 일터와 가정의 시공간적 경계를 넘어 설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 또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갈 길이 멀다. 아니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올 지도 모르겠다. 돌이 벌어도 먹고 살기 빠듯한 경제상황은 지속되고 그만큼 돌봄의 공백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돌봄의 사회화에 투자하지 않고 여성의 파트타임 취업을 활성화해서 여성‘만’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퍼플잡이나 지난 7월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여성노동자를 영영 ‘반쪽짜리’ 노동자의 지위에 머물게 하려는 시도다. 필요한 것은 남성중심적 노동세계의 전제들을 전환하는 것이다. 노동자라면 돌봄 가족도 없고 자신의 돌봄 또한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24시간을 일에 투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범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비가시화되었을 뿐 우리의 삶은 노동과 분리되지 않으며, 상호의존적 돌봄 관계의 바깥에 있는 인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는 누군가의 파트너이고, 어



머니이기도 아버지이기도 하다면 남녀가 일터와 가족의 시간을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남성에 의해 전유되어 온 직장 내 관계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다른 성별의 동료들이 어떻게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지, 그것을 가능하게 할 문화가 필요하다. 일터는 남성적 의사소통과 유대의 방식만이 존재해 온 곳이기 때문에 이성인 상대와의 관계 맺음은 남녀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으며, 그만큼 훈련이 요구된다. 또 대안적인 기업 조직의 운영 원리를 만드는 과정이 몇몇 여성 리더를 상징적으로 배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바뀌어야 할 것은 권위와 힘에 기초한 조직 전반의 관행이지, 남성의 자리를 여성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직장 내 성평등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은 당연한 전제이지만 미시적인 노동과 일상에 대한 성찰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 참 짧고도 길고 길고도 짧은 '우리'들의 하루

강위 | 글 쓰고 책 만드는 어른 아이

**"누군가 내게 '집안일은 언제 하느냐'고 묻는다면  
'안 하는데요'라고 답하겠어요."**

내가 나의 노동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비혼 일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일도 열심히 잘 하고, 장보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각종 쓰레기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안일도 깔끔하게 처리하고, 몸단장과 건강관리도 칼같이 하는 사람, 있을 줄로 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다.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침에 눈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시간을 도둑맞은 것처럼 정신없이 보내다가, 어쩌다 짬이 생기는 날에는 불쑥 잃어버린 시간과 내 자신을 찾아 헤매기도 하지만, 어느 틈엔가 다시 뻥뻥한 일상의 쳇바퀴를 돌기 마련. 이렇게 우리의 하루는 짧고도 길고 길고도 참 짧다.

### **오전 8시 : 나도 아내가 있으면 좋겠다**

어제도 야근하고 늦게 잠들었더니, 온 집안을 흔들어대는 알람소리가 5분 간격으로 울려대도 몸은 바닥에 눌러 붙은 누룽지 같다. 부리나케 씻고, 옷 속으로 다이빙한 뒤, 전기밥솥의 밥을 서둘러 담고 잠자기 전에 챙겨둔 도시락 반찬통을 챙겨서 무서운 속도로 집을 나선다. 그나마 직장이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기에 망정이지, 50분씩 지옥철에 시달려야 했던 시절에는 인정사정없이 밀쳐대는 아저씨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온몸에 힘을 주느라 출근도 하기 전에 지치기 십상이었다.

출근길에는 많은 것이 젖어 있다. 내 몸은 피로에 젖어 있고, 앞서 바빠 걸어가는 여자들의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물청소로 하루를 시작하는 상점 앞이 젖어 있다. 이런 아침이면 나도 (집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나의 출근 준비와 점심 도시락을 챙겨주는) 아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부터가 ‘그런 아내’가 될 마음이 없는데 언감생심! 상념을 떨치려 헤드폰 볼륨을 바짝 올리고 출근!

### **오전 10시 30분 : 남자라면 고민하지 않을 선택의 순간**

아직 정신도 제대로 들지 않고 배도 고프는데 누군가 “책 왔어요!”라고 외친다. 출판사의 특성상 본사 입고되는 책들을 전 직원이 나서서 창고로 날라야 한다. 입사 초기에는 나도 등짐을 지겠다고 설레발을 쳤지만, 직업병인지 고질병인지 허리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등짐은커녕 붓짐도 들기 힘들어진 나는 짐 나르는 대열 꿈무늬에 꾸물꾸물 따라붙는다.

돌아해보면 내가 ‘등짐을 들겠다’고 자청한 이유는 ‘남자들만 무거운 짐을 든다’라는 전제가 싫었고, 고된 육체노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으스대는’ 모양새가 보기 싫어서였다. ‘남자처럼 일할 것인가, 여자처럼 보일 것인가’라는 갈등 상황에서 전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던 것이다. 다행히 나는 일하는 공간에서 평등한 업무 수행이란 ‘여자인 나도 남자와 같은 양의 짐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 수 있는 만큼의 짐을 옮기고도 주눅 들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고, 무거운 짐을 옮기고 나서 ‘괜히 으스대며’ 담배를 피우는 남자 직원들 앞에서 기죽지 않(을 뽐터러 속으로 콧방귀를 킸)다. 흥이다, 흥!

### 점심시간 :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다

오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앞둔 선배가 고별 점심을 먹자고 한다. 급하게 싸온 도시락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도시락 멤버’ 여직원들이 근처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간다.

아이를 가지고 차츰차츰 배가 불러오는 선배들을 지켜보며, 손바닥으로 태동을 느끼고, 선배를 닮은 아이일까, 건강했으면 좋겠다,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동안, 하나의 생명이 자라는 과정이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그렇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다른 누군가가 떠맡아야 한다면(그게 바로 나라면!) 서로가 마음이 편할 리 없다. 나의 권리를 덜어서 남의 권리를 채워 주는 방식이 아니라 명쾌한 업무 이월과 인원 재배치가 이뤄져야, 떠났다 돌아오는 사람도, 보냈다 맞이하는 사람도 혼쾌할 텐데. 아, 정말, 진심으로 선배들의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싶다.

### 오후 3시 30분 : ~양이 아니라 ~씨가 되기까지

나른한 오후, 오늘도 어김없이 건물 관리소장님이 고요한 사무실에 들어와 “우편물 다 가져왔어~”를 외친다. 그리고 내게로 다가와 ‘○○○ 씨는 어디 갔는지’를 묻는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백발과 주름살로 추측컨대 일흔 가까이 되시는 것 같은 이분은, 입사 초기 나에게 “△양, 오늘 야근 할 건가?”라고 물었고, 나는 황당함과 민망함과 분노로 심장박동이 거칠어

지곤 했다. 남자 직원들에게는 꼬박꼬박 ‘~씨, 혹은 ~대리님, ~과장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또래의 여직원들에게는 아무 거리낌 없이 ‘△양, ○양, □양’이라고 불렀던 건 우리가 ‘만만해서’,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서’라는 의식, 혹은 무의식 때문이지 않을까.

다행히 호칭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이제는 더 이상 ‘△양’이라고 불리지 않지만,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양’이라고 부르던 모습을 떠올리면 절로 고개가 내저어진다.

### 오후 5시 : ‘여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일하고 싶은 방식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 시간. 수차례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해도 연락이 닿지 않던 화가에게서 ‘이번 작업은 힘들겠다’는 문자 메시지가 날아들고!

출판 기획부터 편집 전반을 책임지는 편집자는 한 권의 책에 얽힌 관계들을 조율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나는 일상적인 안부, 이번 작업에 대한 기대나 만족도 같은 것을 잘 챙기는 편인데, 계약으로 얽힌 ‘갑과 을’로 삭막하게 일을 하기보다, 한 권의 책을 통해 교류하는 ‘파트너십’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처럼 내 기대와 완전 어긋나는 상황이 터지면, ‘내가 너무 만만해 보였나’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도 상대를 권위나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 계약 조건을 내세워 압박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싶진 않다. 남들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관계적으로 보일 수도, 필자나 화가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야 지치지 않고 오래 이 길을 갈 수 있겠다 싶다. 그래서 냉수 한 사발로 속에 난 불을 끄고 화가에게 전화를 건다. 아-주-상냥한 목소리로, “선생님~ 보내주신 메시지 받았는데요.” 이렇게.

### 저녁 8시 50분 : 야근 뚫고 요가킵!

시간이란 게 얼마나 간사한가 하면, 끝 간 데 없이 노곤한 오후에는 시간

이 고인 물처럼 흘러갈 줄을 모르더니, 할 일이 산적한 날에는 고개를 들어 보면 어느새 해가 저 있기 마련. 회사에서 야근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계속 그런 패턴으로 살게 된다는 선배들의 충고를 받자와, 얼마 전 요가원에 등록을 했다. 나 같은 직장인들이 적지 않아서인지, 요가원의 마지막 수련 시간은 8시 50분. 급하게 피드백을 해야 할 원고를 붙잡고 끙끙대다 보니 어느덧 8시 15분! 지금 나서야 수련 시간에 맞게 도착할 수 있다.

다 보지 못한 원고를 ‘내게 쓴 편지함’에 담을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가 는 딱 감고 컴퓨터를 끈다. 야근도 부족해 집까지 일거리를 싸들고 가서 일 하던 때도 있었지만, ‘일은 회사에서, 집에서는 내 시간’이란 원칙을 애써 지키지 않으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일에게 헌납하는 불상사가 생기고 만다. 정말, 진짜, 완전 급한 상황에 쓰기 위해 오늘은 ‘집에서 일하기’ 쿠폰을 킵(keep)해 두고 퇴근!

#### **밤 10시 10분 :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한 시간 가량 요가를 하고 나니 몸은 노곤한데 오히려 상쾌하다. 그래, 이거야!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꾸준히 요가를 해야겠어! 역시나 선불리 기대하고 다짐하며 요가원을 나선다. 물론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아침의 물기가 사라진 밤 시간이 찾아들고 있다. 오늘 짜간 도시락을 먹지 않았으니 내일은 도시락을 안 싸도 되고, 빨래가 잔뜩 쌓여 있지만 내일이 금요일이니 이틀만 더 참아보기로 하고, 저기 앞 마트에서 물먹는 하마를 사야하고, 아무리 늦어도 쓰레기는 오늘 내놔야지. 오늘 다 못 본 원고는 내일 오전까지 봐서 연락을 드려야겠고, 애써 달랜 화가에게는 내일 오후에 한 번 더 전화를 해봐야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는 걸음걸음마다 할 일들과 한숨들이 움푹움푹 패이고, 능력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못다한 일들까지 불쑥불쑥 얼굴을 들이밀 기세다.

잠깐! 이 시간만큼은 더 이상 가혹해지지 말자. 그래, 지금 이만큼 하는

게 어딘데! 잘하고 있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의기소침해지려는 내 자  
신에게 폭풍 칭찬과 격려를 건넨다.

**"그런데도, 어딘지 모르게, 내 그림자는,  
조금, 기울어져, 절뚝이는 것만 같군요."**

# 작은꽃 아픔으로 피다

작은꽃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 피해생존자

나의 어릴 적 성장과정은 고아로 자라서 고아원의 단체 생활의 정해진 시간에 맞춰져서, 막연한 그리움과 단란한 것들에서 벗어난 집단의 시간과의 전쟁이었던 것 같다. 무작정 서울로 도망쳐 나와 시작되었던 서울 객지 생활. 두 집의 식모살이를 거쳐 기술을 배우기 위해 다니던 복지회관에서 만난 여동생이 가정을 꾸며보라던 말에 귀가 솔깃하여 신랑감 얼굴도 안 보고 충남 땅에 들어가 파란만장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나의 소박한 꿈은 예나 지금이나 평범하게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지만, 멋모르고 시작된 가정생활이란 참으로 힘든 여정과도 같았다. 나는 아이들 셋을 낳아 키우면서 결국 남편의 알콜 중독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 말았다. 이혼하기 전부터 아들 아빠가 술 중독 때문에 직장을 못잡아서 생활비를 벌어들이지 못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살림 걱정을 하던 차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근처에 들어서고, 마침 출고센터에서 사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여 면접을 보게 됐다. 이때만해도 나는 관리자와 사



원 사이의 권력 관계로 인한 성희롱, 성폭력이라는 단어조차도 못 듣고 살았던 그저 평범한 시골 아줌마였다.

입사 이후 나는 남녀가 함께 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부터가 생소했다. 처음 입사 때에는 여자가 나 혼자였고, 다 남자 사원들뿐이었다. 혼자서 남성들 사이에 끼어서 일을 하려니 애로 사항이 많았다. 쉬는 시간에도 처음엔 여자 탈의실에서 문을 잠그고 쉬었다. 밥을 먹어도 한 차에 같이 끼어서 타고 가야 했는데 불편했다. 남자 사원들은 여성이 있는데도 가리지 않고 차 안에서 농담 따먹기를 자기네들끼리 즐겼다. 그럴 때면 나는 눈을 어디에다 돌려야 할지를 몰라했던 철없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처음엔 같이 밥 먹으러 가지 못했던 적도 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점차로 여사원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서로 경쟁심도 생긴 것 같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쟁심이란 업무와는 달리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하는 그런 것이었다. 소장, 반장, 조장까지 그 사람의 성격에 맞춰서 비위를 맞춘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의례껏 소장이나 사장이나 그저 급 있는 것들이 자기들은 손이 없나 출근만 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사원한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킨다. 사장도 나한테도 여러 번 커피를 타오라고 시켰다. ‘내가 비서도 아니고 사무실에는 여경리도 있는데 왜 일하고 있는 사원들한테 시키는거야.’ 하고 많이 수근대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한다. 어찌 감히 힘없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냥 받아 마시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커피를 타기에 맛이 좋은 거야? 저을 때 보면 엉덩이도 같이 돌아가던데.” 하면서 스스럼없이 성적 농담을 하는 것도 그냥 다 들어야 한다. 이런 말들은 직장 생활 몇 년을 하다보면 그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흔한 말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말과 행동들은 비단 상사들뿐만 아니고 사원들도 한다. 뭘 일이 생겨서 뛰어나다보면 “아까 뛰어올 때 가슴도 같이 흔들리던데.”하고, 키가 작다는 얘길 하면서 ‘가슴이 아스팔트에 껌딱지’ 라든가 ‘계란 후라이처럼 납작하다’는 소리를 밥 먹듯 쉽게 하면서 웃기까지 하고, 일하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손으로 가슴을 주물거리는 행동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가 버리고, 차에 타고 있으면 밖에서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뽀뽀하는 시늉을 하는 등 참으로 조잡스럽기까지 한 짓을 한다.

그런데도, 그럴 때마다 문제를 말할 수 없어서 분하고 서러운 현실에 지쳐가는 일터생활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성희롱이 은근한 스트레스로 자리를 잡았다. 더 큰 스트레스는 이런 일들을 그냥 넘겨야한다는 현실인 것 같다. 생각 같아서는 그놈들의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내겐 그만한 힘조차도 없는 것이다. 그저 더럽고 아니꼽고 꼴보기 싫으면 본인이 떠나야하는 사업장의 행태들이 정말 짜증났다.

해고되기 전 이삼 년 동안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는 없는데 여길 그만두자니 처음 직장 잡아 배워서 한 것이 이진데 그만둔다 해도 어디를 들어갈 것이며, 들어간들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일터를 생각하니 갑갑해져 망설여졌다. 당장 한 달만 일을 안 해도 생활비가 없는 상태라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힘없는 내 상태를 탓해야만 했다. 참고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를 것이다. 이러한 고통들을 소장과 조장으로부터 받는 상황. 처음엔 은근히 시작된 조장의 성희롱에 소장의 성희롱까지 겹쳐서 그런 성희롱 발언과 행동들이 점차로 심해지면서 내가 받은 고통은 배가 되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참기엔 너무 힘든 시점까지 오고야 말았다.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나에게 정직 6개월을 통보하여 이에 맞서 싸우는 그 지옥같은 일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고통과 상처로 남을 것이다.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내는 그 날까지 적어도 나는 해고를 당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이것이 바로 14년 동안 내가 일해 왔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다. 문제를 말하면 징계를 하거나 심하면 나처럼 해고시켜버린다. 문제를 제기하면 앞으로 자기네들이 아주 편하고 쉽게 여성노동자들을 성희롱 해왔는데 그렇게 못하게 될까봐, 그리고 나를 보고 또 다른 여성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도 싸우겠다고 들고 일어날까봐 미리 화근 덩어리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해고를 시켜버린다. 그리고는 아직도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거봐라, 너희들이 회사에서 이런 일로 시끄럽게 하고 알리고 떠들면 재랑 똑같이 해고당하게 되니 조용히 살라.”는 회사 측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해고된 날 나는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했다. 그냥 앉아만 있다가, ‘내가 왜 앉아 있나, 이러면 안 되지, 억울한데 싸워서 반드시 복직해야지, 들어가서 내가 당한 억울함을 다 갚아주어야지, 여기서 물러나면 아마 더 힘들겠지, 내가 저 자리를 얼마나 힘들게 지켜왔는데…….’ 그래서 나는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 회사 안에서 혼자 일하면서 겪었던 그 심한 고통과 지옥같은 마음들이 없어지고 – 비록 해고가 됐지만 – 마음이 평안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처럼. 내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말 그랬다. 그 마음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해고돼서 바깥 길바닥에서 겨울나고 여름이 지나, 또다시 겨울 문턱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성희롱 당하고 말도 못하면서 무조건 모든 걸 참고 살기보다는, 비록 해고

는 됐지만, 지금 나는 지극히 정당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렇게 싸우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도 나에게서는 아주 큰 행복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면서도, 싫은 내색만 해도 자리배치나 노동 강도가 좀 더 센 곳으로 보내고 사원들 사이에 왕따시키는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이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살 수 밖에 없다.

적어도 생리휴가를 쓴다하니 근거를 제출하라는 소리를 들으며 주머니에 있던 생리대를 꺼내서 싸우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작업 도중에 걸어가는 나에게 “어젯밤에 무리를 했나, 왜 어그적거리며 걸어가냐.”는 소리를 듣고 살 수만은 없는 일이다. 상사가 사원이 잠깐 안 보인다고 어디 갔냐면서 “뒤통하러 갔어?”라든가, 작업하다가 뭘 떨어뜨리면 “왜 그리 힘이 없어? 밤에 별을 많이 땀구만. 몇 번 했어?”라는 말을 그냥 평상시 듣고 계속 일을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니 내가 일했던 사업장이다. 앉아 있는 것만 봐도 모양을 탓하면서 방석집 앞에 있는 것 같다고 한다. 무슨 말을 하면 거의 성희롱이다. 이럴 때마다 기분이 정말 더럽고 혐오감을 느끼고 수치스럽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나는 힘이 없으니…… 권력이 무섭다. 형편이 어려워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 참아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비단 상사뿐만이 아니라 같은 사원들도 하는데 이들도 힘이 없으면 안한다. 같은 사원이라도 알고 지내는 사람, 혹은 이 현대자동차 안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연줄로 들어 온 사원은 그 힘과 권력을 등에 업고 같은 여사원들을 성희롱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나는

비록 문제를 말하고 해고가 됐지만, 알리고 말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도 참고 사는 지옥 같은 저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말 한마디 못하고 돈을 벌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나는 참으로 떳떳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다.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이 투쟁이 헛되지 않아서 직장 안에서 성희롱이 근절되는 밑거름이 되고 변화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성희롱 당하면서 말 못하거나, 말했다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좀 더 나은 직장 생활을 약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적어도 생계 때문에 일터에 뛰어들어 여성들에게 상사라 하여, 힘이 있다하여 아무 때나 전화해서 ‘술마시게 나와라, 자리 오겠다, 재워달라, 내 마음이다’하는 성희롱은 근절되어야 한다.

지금 내가 복직한다면, 적어도 내 일터에서 성희롱은 안 당할 자신이 생겼다. 내게는 정말 많은 변화다. 나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그때 대처할 능력이 생긴 것이다. 여러 동지들과 연대 단위 분들을 통하여 같이 싸움을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훈련되고 몸소 체험해서 배운 것 같다. 이제는 세상을, 사회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다.

# 통계로 본 직장내 성희롱 피해 실태

2011년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김정혜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전)객원연구원, 본 실태조사 공동연구원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상경 농성이 150일을 훌쩍 넘었다. 그녀가 해고된 지는 벌써 1년이다. 비정규직인 그녀는,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다가 온갖 징계를 거쳐 해고까지 당했다. 그동안 가해자는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피해자를 음해한다. 어이 없는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성희롱 사건에서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직장 내 성희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성희롱 예방 의무까지 입법한 지 오래지만, 현실에서는 성희롱에 상당히 허용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실제 여성노동자들의 성희롱 경험은 어떨까. 모든 통계가 그러하지만 성희롱 문제는 연구마다 경험률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다. 최근 1년간으로 기간을 제한한 어떤 연구는 8.5%<sup>1</sup>, 어떤 연구는 90.3%<sup>2</sup>를 상회하는 경

1) 여성 기준. 남성은 1.5%의 경험률을 보였다. 안상수 외(2010), 『성평등 실현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I): 직장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이성희 외(2001), “직장여성의 성희롱 경험 실태와 관련변인 분석: 전라북도 직장여성의 인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39(2), 대한가정학회.

험률을 보고한다. 성희롱이라는 행위의 특성상 피해경험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인식 차이도 커서 조사 방법이나 문항의 구성 등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 하에서, 올해 상반기에 민주노총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여성노동자 1,652명의 응답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에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노동자는 39.4%이다. 다수는 일년에 한두 번 이하로 성희롱을 경험하였으나(67.3%),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이었다는 응답도 14.6%에 달한다. 대개의 성희롱은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92.5%) 상급자(65.0%) 남성(95.3%)에 의해 발생한다. '성희롱을 거부하면 고용상 업무상 불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는 불이익 대가형 성희롱은 성희롱 경험 중 18.2%이고, 이익 대가형 성희롱은 12.8%이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하면 여성노동자의 6.3%가 최근 2년 사이에 불이익 대가형 성희롱을 경험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대가형 성희롱 경험률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가형 성희롱 경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큰데, 응답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16.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서 볼 때, 정규직의 불이익 대가형 성희롱 경험률은 성희롱 경험자 대비 16.4%인 반면, 비정규직은 27.8%나 된다. 비정규직이 경험하는 성희롱 4건 중 1건 이상이 불이익 대가와 결부되어 있다는 말이다.

고용안정성에 따른 차이는 환경형 성희롱의 종류에서도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 성희롱 경험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통계상으로는 총 성희롱 경험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보다는 경험의 질이 달랐다. 성희롱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성한 15가지 문항 중에서 고용안정성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문항은, '원하지 않는데 무시하고 만나자고 계속해서 요구',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가슴, 엉덩이, 다리 등

신체부위를 쳐다보거나 추파를 보냄', '원하지 않는데 은밀한 장소(집, 모텔 등)로 유혹(또는 귀가하지 못하게) 함',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회식, 접대 등에 억지로 참석하였거나 참석할 것을 강요'와 같은 응답들이다. 모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경험률이 훨씬 높다. 다른 문항들과 비교해보면 상대방을 직장 동료보다는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성적으로 접근가능한 존재로 이해할 때 가능한 행위들이다. 간접고용도 직접고용과의 관계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고용불안에 처한 여성노동자가 더 직접적인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다면, 성희롱에 대한 대응에 있어 안정된 고용은 다른 방향에서 피해자의 발목을 잡는다. 성희롱 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지시관계에 있는 상급자이거나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동료이고, 배치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다시 업무상 마주칠지 알 수 없다. 피해자가 근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피해제기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난을 가급적 방지하여야 한다. 때문에 정규직은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불쾌하다는 표시(14.2%)를 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38.3%) 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더욱 많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거나(31.3%) 회피하거나(39.9%) 농담으로 넘기거나 동조하는 척(28.2%)하는 반응을 더 자주 보인다.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있어서도 고용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2.3%)나 업무상 불이익의 우려(18.6%)보다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39.9%)나 '분위기를 깰까봐'(36.1%)가 훨씬 많다.

반면 고용이 불안정한 피해자는 고용이 안정된 집단에 비하여, 회피성 대응이 더 적으며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적극적 문제제기(비정규직 21.7%)와 간접적 문제제기(비정규직 34.8%)의 차이가 더 적다. 이는 성희롱 경험의 질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앞서 보았듯 고용안정성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유형은, 자리를 피함으로써 상황을 모면하거나 농담으로 넘겨버릴 수 있는 경우보다는 수용 또는 거부라는 선택



을 요하는 경향이 있는 행위들이어서 회피보다도 문제제기의 사례가 더 많은 것이다. 또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서는 고용이 안정된 집단에 비하여,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26.1%)나 분위기의 문제(17.4%)보다 업무상 불이익 우려(28.3%)나 고용상·계약상 불이익 우려(19.6%)가 더 크게 나타난다.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은 현대차 피해자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직장 내 관계에서 특히 상급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성희롱은 상급자가 가진 권한으로 인하여 성희롱 거부나 문제제기에 뒤이어 피해가 확장될 위험이 상존한다. 현행법상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행위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은 다양한 수위에서 업무상, 고용상 불이익을 경험한다. 이유 없이 결제가 보류되거나 트집을 잡히고 불필요한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가 하면 반대로 업무 공유를 비롯한 직장 내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악의적인 추문에 휩싸이는 것처럼 명백한 2차 가해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불이익이 직장 내에서 가해자 및 상급자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행해지더라도 성희롱 문제제기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성희롱에 대해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일은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관계상, 업무상, 고용상 불이익에 대한 예측과 성희롱 피해와의 저울질을 필요로 한다. 문제제기로 인한 부담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로 전가될 위험도 감수하여야 한다.

때문에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로 유일하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두고, 매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53.5%)은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며, 이 수치에도 허수가 많다. 다수의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모두의 참여를 확보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성희롱은 상급자에 의하여 발생하고 피해구제 역시 상급자의 몫이지만 막상 상급자들은 교육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 고용안정성에 따른 차이도 커서, 비정규직은 25.8%, 간접고용은 23.4%만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은 '의무'이지만 쉽사리 회피된다. 사정이 이러하니 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리가 없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의 성희롱 경험률(38.9%)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의 성희롱 경험률(39.0%)과 차이가 없다. 교육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보여주는 증거다.

성희롱은 행위자 개인의 실수나 잘못으로만 축소될 수 없는, 남성중심적 직장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문제다. 법률로써 성희롱을 금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에서 성희롱은 일종의 '활력소'로 인식되고 문제제기는 자주 예민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이해된다. 때문에 성희롱은 사라지지 않고 직장 내에서의 피해구제도 더디다. 규제 강화도 궁극적 대책은 아니다. 직장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성희롱은 좀 더 취약한 피해자에게로 이동하는 데 그치기 쉽다. 150일이 넘게 길거리를 지켜야 하는 그녀처럼.

# 결국, 하고 싶은 말

사후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논쟁을 보며

꼬감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일 년 전인가. 독립적이고 까칠한 둘째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내가 하는 활동을 오지랖이고 비현실적이며 이상만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녀가, 아주 현실적이고 급한 목소리로.

“언니, 사후피임약 말야……. 그거 어디서 사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별 무리 없이 모범생으로 순탄한 길을 걸었던 동생은 TV 속이나 주변 여자들의 의도치 않은 임신과 같은 인생의 급작스런 변화를 한심해 했다. 준비 못한 섹스, 계획하지 않은 삶을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하고 단선적인 사고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굳이 내가 뭘 그것까지 생각해야 하나, 뭐 그런 식이었다. 그런 동생에게 온 전화였다.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 그 친구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도 있었다. 어떠한 사족도 붙이지 않고, ‘나는 너를 비난할 생각이 눈곱만치도 없다. 너도, 나도 그럴 수 있다’는 비언어적 메시지

를 한껏 넣어 성심성의껏 설명했다. 사후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하며, 병원 처방을 받아야 하고, 스스로 과하게 비난하거나 쪼그라들지 말아야 하고, 남자친구에게 너의 복잡하고 두려운 감정을 설명하고 공유해야 하며, 꼭 같이 병원에 가고, 이번 계기로 이후에 남자친구와 피임 실천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갖는 기회로 삼아라 등등. 웬지 그나마 있는 전문성을 과하게 어필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나보다. 사실 나도 잘 몰랐다. 인터넷 찾아가며, 상담소 활동가들에게 물어가며 일도 팽개치고 어떻게 설명해줘야 하나 고민했던 기억이 있다.

얼마 전 7월,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논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산하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17개의 약품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서 약국 판매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 논의 중에 있었는데 이 약품 중 사후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처방을 받아야 구매가 가능한 노레보정을 약국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약국 판매와 관련되어서 보건복지부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에서 “종교계와 의사계 반대가 극심해서 사실 전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답변을 들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사후응급피임약과 관련해서는 윤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결정을 보류시켰다.

한국천주교회 등 종교계에서는 응급피임약은 성문란을 조장하고 낙태약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려는 교회로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일부 의사계에서는 사후응급피임약을 허용하면 사전 피임을 안해 낙태율이 높아질 것이고 과다 복용에 의한 부작용과 오남용의 문제, 판매량이 몇 십 배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언뜻 들어보면 그럴싸하다. 1분만 더 생각하면 꽤 황당한 논리다.

사후응급피임약이 약국 시판된다고 성관계가 많아질 것이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응급피임약의 부작용을 알 수 있는데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다고, “와 이제 섹스를 하자. 응급피임약이 약국에서 파니까 오늘 만나!”라고 환호할 꺼라고? 성관계가 많아진다는 상상력도 참 저열하지만(타인의 섹스에 된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실제 성관계가 많아져서 문제될 건 뭐있나. 낙태가 많아질 것이라고? 사후피임약의 접근성이 높아져야 원치 않는 임신이 줄어들지 않겠나. 오남용, 부작용이 많아질 거라고? 오남용의 문제는 의약품 자체가 내재하는 속성이다. 어떤 의약품이든 판매와 오남용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성들에게 직접 끼칠 부작용 등 건강 차원의 문제나 남성의 피임 전가로 오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정부 차원의 홍보와 교육을 고민하고 지원하라는 것이다.

서구 사례처럼 판매량이 몇 십 배 증가할 것이다? 당연하다. 병원 판매로 그동안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반증이다. 판매 초기에 접근성이 높아졌는데 구매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닌가. 그동안 응급피임약을 병원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휴일, 연휴에는 구매가 어려워 ‘응급’이라는 약의 기본 속성을 방해했으니 접근성을 높이는 게 맞지 않은가. 어차피 병원 처방 받는다고 따로 무슨 검사를 한다거나 부작용을 설명해준다거나 따로 진찰해주는 거 아니다. 그냥 가면 준다. 수치심이나 심정적 거리감 때문에 병원 방문을 주저하는 여성들의 정서적 접근성을, 약의 실효성을 높이라는 얘기에 왜 이리 반대 논리가 거창한가. 성문란? 생명경시? 성도덕 추락? 참으로 고결한 분들 나셨다.

또한 이런 걱정적인 주장 속에는 빠진 이야기가 있다. 정작 이 약을 복용해야 할 여성들의 목소리다. 실제 여성들이 언제 어떻게 왜 사후응급피

임약을 복용하게 되는지 말이다. 누가 두려움에 떨면서 임신 아널까 걱정을 하면서,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복용하고 싶겠다. 피임 실천 과정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 살펴보자는 얘기를, “사후응급피임약 접근성 높이면 안된다.”는 주장으로 헛갈리게 휘젓는 이들은 누구인가. 경제적 이해관계와 가부장제, 관념적이고 교조적인 여성억압을 위해 열심히 목소리 내는 그들은 누구인가.

‘왜 피임을 못했니, 너 설마 벌써 성관계를 하니, 결혼도 안했으면서 순결 의식이 엉망이구나, 부모님이랑 사는데 어디서 한거니, 그때 밤샘 날 엠티가 아니었구나, 어머 너 성적 문란이 과하구나. 낙태가능성도 있는데 생명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인간아…….’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중국에 퍼붓고 싶은 비난은 무엇인가. ‘너,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성관계를, 한다는 얘기니?’

노레보정의 일반의약품 전환의 논쟁 속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성문화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성문란이란 말로 함축된 화살촉이 노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사회는 여성이 성적 주체가 되는 것, 그게 두려운 거다. 비난하고 싶어서 안달나지 않았다. 그 말이 하고 싶어 돌고 도는 거 아닌가.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 3

생존자 말하기

저는 제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지엔의 작은 성공기

성폭력과 사람들

함께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야

사례연구

진실을 말하지 않는 CCTV

# 저는 제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자두

처음 상담소 선생님께 내가 겪었던 사건에 관해 짧은 수기를 써 줄 수 있겠느냐는 전화를 받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 글을 써야 좋을지 난감했었다. 하지만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게 되었다.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2년이 지났다. 나는 내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했던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을 받게 했다. 만약 내가 이 일을 조용히 묻어뒀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예정대로 외국에 나가 공부를 했었고 바쁜 삶 속에서 그 사건은 내 기억속에 희미해졌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사건을 덮고 지나가는 편이 지금보다는 덜 상처받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왜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조용히 덮고 살아가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했고 가해자는 상사인 공무원이었다. 가해자



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서 나는 가해자에게 당한 피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꿈에서 만나도 심장이 요동쳐 잠에서 깨게 만든 그 얼굴을 수사를 받으며 직접 대면했다. 수사기관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늘 그 기억을 떠올려야 했고 가해자와 동등한 자리에 앉아서 나란히 수사를 받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았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기도 가해자와 대질조사를 몇 번 더 받아야 했다. 나는 매번 똑같은 기억을 상기시키며 “제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제 말 좀 믿어주세요.”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믿어주는 것 같지 않았다.

대질조사를 받던 검찰청 4층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가해자는 당당하게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인 내가 배은망덕하게 잘해준 직원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차라리 여기서 뛰어내려 죽을까?’라는 생각도 했다. 기소가 되기 전, 중재위원회라는 곳에 가서도 가해자는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했고, 그 자리에서 나는 경기를 일으키며 쓰러져 내 발로 걸어 나오지 못했다.

나는 세상이 정말 무서운 곳이란 걸 처절하게 느꼈다. 아군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전쟁터에 나 혼자 서있는 기분을 처음 느꼈다. 나는 분명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아닌 기분이 들었다.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너무 싫었다.

내가 당했던 사건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50세가 넘는 공무원인 가해자는 내가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넓은 사무실 내, 회식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나를 추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이후에는 내 얼굴을 만졌고 어깨를 주물렀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내 옆으로 다가와 웃으며 내 머리를 넘긴 뒤 눈을

감고 내 귀를 만지며 기도를 했다. 여자 직원들이 많은 회식 자리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입에 담기도 민망한 술을 직접 만들어 남성의 가랑이 사이에 끼워 여자들만 따라 마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많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내 엉덩이를 만졌다. 또한 그는 아무렇지 않게 직원들 앞에서 내가 똥똥하다며 개돼지파라고 모욕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더 놀라웠던 사실은 그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의 피해를 당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몇 명의 여자 공무원들이 가해자에게 추행과 모욕을 당해 상당히 불쾌했다고 말했지만, 그 여직원들은 사건이 터지자 나와 자신들이 당했던 피해를 모른 척하고 내게 제일 먼저 협박과 회유를 하며 수사기관에 출석해 가해자를 두둔했고, 내게는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 나와 동갑인 딸이 있다는 한 고위 여성공무원은 울고 있는 내게 너가 너무 순진해서 상처받은 거라고, 가해자가 잘해준 걸 오해한 거라며 조용히 덮고 가라고 말했다.

성폭력의 피해를 겪은 뒤, 내 삶에 큰 변화들이 많이 생겼다. 먼저 성격이 많이 변했다. 한동안은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늘 불을 켜고 잤고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렸고 아는 사람이 없이는 외출도 못하였다. 성인 남자가 주위에 있으면 손에 땀이 났고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서 심장이 곤어 버리는 느낌이 들어 나는 그 자리를 피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가해자와 직원들이 집과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바들바들 떨었다.

하지만 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다. 눈만 뜨면 자료를 모았고 티끌만한 증거가 나오면 수사기관에도 진정서를 수 십 통을 냈

다. 법적 지식이 없는 나는 내가 모아뒀던 서류들을 모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찾아갔고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찾아서 했다.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겼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상담소 활동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많은 도움을 받으며 용기를 얻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의 소개로 좋은 심리상담 선생님을 만나 꾸준히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힘없이 상처받았던 내 자신을 마주하며 내안의 힘을 키워나갔다.

우여곡절 끝에 공판이 열렸고 나는 재판이 열릴 때 마다 용기를 내서 재판정에 갔다. 가해자와 가해자의 변호인의 발언을 들으면서 덜덜 떨었지만, 내 사건은 내가 제일 잘 알아야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을 방청하며 재판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상담소 활동가들과 함께 내가 용기를 잃지 않고 방어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내가 용기를 낸 것은 내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반드시 가해자와 가해자를 두둔하는 자들에게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해도 진실을 꼭 밝혀내리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일 기적이 일어난다면 나보다 더 힘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 희망이 나를 지탱해줬다.

결국 가해자인 피고인은 3심까지 가서 유죄확정이 되었고 형량에 상관 없이 나는 기나긴 싸움에서 승리했다. ‘증거도 증인도 부족하니 넌 질 거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거다, 여자면 누구나 다 그 정도는 당한다, 복수 당

하면 어쩔 거냐' 등 주위사람들의 말들에 상처도 많이 받았고 많은 사람들을 잃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는 내가 마주하기 싫어했던 내 자신의 약한 부분, 잊고 싶었던 상처들을 용기내서 바라보고 그것마저 내 진정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고 내가 지키고 싶었던 신념이 강화 되어 좋은 쪽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좀 더 세상을 이롭게 만들기 위해 굉장히 애쓰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무 약해서 목소리조차 듣기 희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피해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나는 그분들께 받은 도움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따뜻하고 이롭게 만들겠다고 다짐하였다.

지금 나는 사건 전까지 준비했던 아동심리상담가의 꿈을 잠시 접고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 사건을 직접 겪어보니 힘든 일 겪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내 손으로 닦아주고 싶고 내가 수사를 철저히 한다면 최소한 피해자들이 조금 더 빨리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이다.

내가 경찰이 된다면 나는 피해자들에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곁에서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해주고 싶다.

# 지엔의 작은 성공기

지엔

저는 연예인 지망생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살다가 연습생을 하기 위해 연예기획사를 들어가서 생활했습니다. 19살 때, 연예기획사 실장이 연습생으로 들어간 저를 직원처럼 이용만 하고 성폭행을 계속 했는데 신고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용기도 나지 않고, 일 때문에 친구들과도 연락을 거의 끊은 상태여서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이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삶에 지쳐서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때 같은 연습생이었던 18살 동생의 도움으로 신고할 용기가 생겼고, 인터넷을 통해 성폭력상담소를 알게 되어 상담을 받고 열림터(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생존자 쉼터)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2주간은 외출금지고 귀가시간도 평일 7시, 무엇보다 항상 혼자 지내다가 애들과 같이 산다는 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지만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서 나올 것이다'라고 용기를 내어 열림터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식구들과 인사를 하는데 웬지 못 친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너무나 가족 같은 느낌인데 저는 또래 애들을 본 게 아주 오

랜만이고 또 낮을 좀 가리는 편이라 일단 인사만 하고 정해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방을 쓰는 아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신을 반달이라고 부르며 된다면서 저에게 웃으면서 상냥하게 말해주어 열림터가 낯선 저에게 너무나 고마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 같이 이야기하면서 더욱 친해진 것 같습니다.

맨 처음 같이 먹는 저녁식사 때, 오랜만에 먹는 집밥에 눈물이 날 뻔 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밥을 혼자 먹어야 해서 대부분 굶거나 사먹는 정도였는데……. 처음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밥을 어떻게 차려먹는지조차 몰라서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어서 애들이 밥 먹을 때만 같이 밥을 먹고 혼자서는 냉장고 문도 못 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식사 당번일 때에도 식구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칼 잡는 법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애들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청소하는 법도 배우고, 매 주마다 하는 가족회의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서로 불편한 점을 얘기 나누고 서로가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는, 그런 것이 좋았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진술을 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이었는데, 열림터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술 한 번 하고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저기압이고 계속해서 그때 사건이 떠올라서 자꾸만 울게 되고 감정적으로 너무나 불안정했습니다. 다행히 열림터에서 지원해준 클리닉을 다니게 되면서 갈등이나 고민이 생기면 상담을 하고 조언을 듣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열림터에서 소개해준 10대 자립 훈련 실험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나와 같은 또래 애들이 운영하는 일터라서 걱정도 되고 솔직히 너무 힘들 것 같아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면서 갈등이 계속 생길 때마다 일하는 곳의 코치님과 열림터 선생님들께 이야기하고 상담하면서 풀어나가니까 마음에서 쌓이는 일도 없고, 그 때마다 잘 풀어나가서 일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편이 있구나, 날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더욱 힘도 났고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된 가정폭력과 연예기획사에서 겪었던 성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구토를 하는데, 열림터 식구 중 한 명과 다뿔을 때에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열림터 선생님들과 제 두 번째 룸메이트였던 읽는여우 언니가 저를 보살펴주고 걱정해 주어서 잘 나올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혼자 지낼 때는 병원 갈 엄두도 못 내고 혼자만 힘들어 했는데, 누군가 옆에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것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열림터 규칙을 잘 못 지켜서 한 달에 다섯 번을 어긴 적도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규칙을 어기는 일이 없어서 문화상품권을 매달 받고 우수학생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혼자 살면서 일하고 공부도 한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열림터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해줘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공부에 손을 뗀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처음엔 수업에 집중도 안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도 막막했는데, 계속 다니면서 또래 친구를 사귀게 되고 선생님들과도 친하게 지내면서 공부에 재미도 붙여서 열심히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는 증인으로 두 번 출석했는데 판사와 검사, 가해자 측 변호사가 번갈아 가면서 입에 담기도 싫은 가해자와 있었던 사건을(바로 어제 있었던 일을 진술한다고 해도 헛갈릴 정도로) 계속 물어봐서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지속적인 가해자 측의 합의요구도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고소 사실을 어머니께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어 법원에서는 제가 미성년자라서 보호자인 어머니께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걱정됐지만 용기를 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데 어머니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면서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라고 말을 해줘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소리부터 지르고 회피하려고만 하고 위로 같은 건 전혀 할 줄 모르시고 저에게 관심도 많이 주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정하게 말씀해 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재판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면서 변호사를 꼭 자기 돈으로 선임해주고 싶고, 같이 살자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보다 다정해지고 저와 꼭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만약 어머니와 무슨 일이 생기면 열림터 선생님들께 상담하기로 하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맨날 시끌벅적한 열림터에서 살다가 갑자기 조용한 집으로 오니까 열림터 식구들이 엄청 보고 싶었습니다. 나의 룸메이트 읽는여우 언니는 제가 퇴소할 때 평평 울기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집에서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올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밥을 차려먹을 줄도 모르는 제가 지금은 할 줄 아는 요리도 많아지고, 청소도 잘하고, 또래 애들과 말도 못했는데 사교성도 생기고 감히 엄두도 못 냈던 고소와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까지! 올해는 정말 많은 것을 이룬 해입니다. 제일 감사한 건 말을 잘 못했었는데 지금은 제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마도 열림터에서 했던 가족 회의 덕분에 말이 트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열림터 선생님들은 어머니같은 존재고 식구들은 가족, 언니 동생 같은 존재입니다.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 함께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야

민트

우리 집 구성원은 나(민트), 주현, 현하 이렇게 여자 셋. 우리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말하기대회 참여자로 만났고 함께 즉흥 춤을 준비했고 춤을 추었다. 그리고 현재 함께 살고 있다. 광활한 우주에서 오롯이 혼자라고 느끼며 오랜 시간 버텨온 내가 이렇게 타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7개월이 넘는 시간을 지내보니 함께 있다는 것이 주는 힘과 그 안에서 나의 변화, 관계의 변화가 느껴지고 나중에 조금 더 큰 공동체를 꾸리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여전히 혼자인 혹은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지만 용기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은 마음이다.

나는 말하기대회 참여하기 이전에 한 번도 나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내가 입은 상처에 대해 말로 표현했던 적이 없었다. 아니 단 한번 사건 당일 엄마에게 설명했을 때는 제외하고서. 그리고 모든 것을 들은 엄마도 그날 이후 그 어떤 표현을 한 적이 없었고, 나는 그렇게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른 채 시간을 보냈고, 그 이후 암묵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아차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다. 그렇지만 그것은 표현 그대로 그런 척일 뿐이었고,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보살핌 받지 못한 상처는 여전히 내안에 그대로 남아서 점점 내 마음을 어둡고 어두운 곳으로 이끌었고 나는 무기력하게 끌려갔다. 그렇게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던 나를 마지막으로 붙잡은 한 가지 생각. 어차피 죽을 거 그 전에 속이라도 시원하게 말이라도 한번은 해보자는 것. 결국 이 생각은 말하기대회 참여 계기가 되었고, 그렇게 나는 주현과 현하를 만났다.

원래 혼자 살던 주현이 집을 옮겨야 하는 시기와 드디어 내가 본격적으로 내 마음을 돌보기 위해 가출(?)을 실행하려고 마음먹고 준비하던 시기가 우연치 않게 겹치게 되면서 우리는 함께 살기를 고민해보기 시작했다. 대학교 때부터 혼자 살던 주현과 처음으로 집을 나와 독립하려고 하던 나에게 타인과 함께 살기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말하기대회를 준비하며 가졌던 마음을 돌볼 수 있던 시간들, 서로를 지켜보며 갖게 된 신뢰감은 우리에게 함께 해보자는 마음을 자연스레 갖도록 해주었고, 우리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고 실행하였다. 그렇게 나와 주현이 함께 살던 어느 날 집들이 한다고 말하기대회를 같이 했던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때 왔던 현하가 둘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는데 실제로 보니 더욱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고 돌아갔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에 현하도 합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세 명으로 세팅(?)이 된 후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처음에 나와 현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둘 다 함께 사는 것에 동의했지만 매일 매일 일상을 함께 할 때 서로의 방식에 맞춰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하는 방식이 달랐다. 나는 살면서 자연스럽게 맞춰 가자는 주의였고, 현하는 미리 확인하고 맞춰 보자는 주의였다. 현하의 방식에

나는 꽤 많이 당황했고, 순간이었지만 함께 살기로 했던 것을 번복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화를 끊지 않고 서로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맞춰보고자 하는 것의 밑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했다. 그런 이후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잘 지내고 있다. 정해놓은 것은 한 가지! 귀가시간이 10시가 넘을 경우에 서로에게 연락하기뿐이다. 우리가 집에서 만큼은 꽤 아날로그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선 TV, 컴퓨터가 없다. 처음 이사할 때 인터넷 설치를 고민했었는데 우선은 설치 안하고 버텨보자 했다. 불편해지면 그때 가서 설치하자고 말이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 별 문제가 없다. 도리어 정말 집이 휴식이 가능한 공간이 되고 있다. 나도 모르게 정신을 뺏길 도구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또 나의 경우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하게 된다. 마음이 복잡할 때 하면 한결 기분이 나아지기도 해서 마음 수련하는 기분으로 정성을 다하게 되는 면도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저녁에 세 명이 다 모이는 날이다. 한 집에 살아도 생활패턴이 달라 못 만나는 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꼭 타로카드를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현하가 타로를 볼 수 있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각자 타로책을 보거나 뽑은 카드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이어간다. 도구가 무엇이 되었든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다. 이렇듯 우리 집의 장점은 언제든지 만나면 대화 나누기 혹은 조용히 가만히 있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해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 정말 좋다. 어떤 것에도 강요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셈이다.

이런 공간이 나에게서는 이전의 삶과 현재의 삶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어

면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다. 이전의 나는 집안에서 언제나 가시 돋친 선인장처럼 가족을, 특히 엄마를 대했고 집에서의 나는 엄마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마디로 하숙생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지금의 삶은 집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나의 부정적인 관념들을 모조리 바꾸어 놓았다. 나는 휴식을 생각할 때 친구들과 지내는 집을 떠올린다.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 내가 원하는 몸과 마음의 이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충분히 나누는 진심을 담은 대화들은 나에게 충만함을 주는 것이다. 뒤돌아서면 마음이 허해지는 그런 빈약한 관계들 속에서는 느낄 수 없던 감정들이다. 그 충만함은 내가 그동안 방치해두었던 나 자신에게 또 다른 방식의 위로가 되고, 어떤 면에서 내 자신을 하찮게만 여기던 나를 변화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된다.

나는 주현, 현하와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연결되어 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행복하다.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함께 살고 있는 지금까지 한 순간도 상대방의 시선에 얽매어서 무언가를 억지로 했던 순간이 없었다. 언제나 우리는 각자 자신의 감정에 집중했고 그것을 서로에게 솔직하게 표현했다.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말하기였다는 사실이다. 말 못할 고통의 시간들을, 쉽지 않지만 말로써 세상에 내보임으로써 사람을 만났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사람으로 인해 치유된다는 것을 나는 경험하고 있다.

최근에 셋이 함께 본 〈그을린 사랑〉이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함께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야.’ 홀로 아픔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꼭 전해 주고 싶은 말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해보니 정말 그렇더라는 말도 더불어 전하고 싶다.

# 진실을 말하지 않는 CCTV

허복옥 |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최근 CCTV 설치가 부쩍 늘었다. CCTV가 부족한 경찰 인력과 장비를 보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난 2002년 서울시 강남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산되어 왔다. 범죄 현장에서 범인은 물론 범행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촬영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CCTV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범죄 용의자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데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곳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특별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CCTV가 증거자료로 많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CCTV의 분석과정은 여전히 수사, 공판 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인식이나 태도에 따라 분석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한 몇 가지 사례는 CCTV의 분석결과가 범죄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척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경우다.

## 사례 1

---

첫 번째 사례는 술에 만취한 A씨를 가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강간한 사건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집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A씨가 비틀거리지 않아서 만취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가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이동할 때 피해자 A씨의 친구들이 전화하여 데리고 오라고 하였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이미 집으로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에는 휴대폰을 꺼놓은 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심 재판에서 피해자 A씨의 친구 3명이 증인으로 나섰고,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말한 증거도 제출되었다. 그리고 대질신문조사 당시에 가해자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CCTV에 촬영된 A씨의 모습이 비틀거리지도 않으니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함께 목격한 친구들의 증언과 피해자의 증언, 가해자가 여러 차례 사과하고 합의를 요구한 것 등 성폭력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CCTV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에만 초점을 맞춰 판단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 사례 2

---

두 번째 사례는 만취한 C씨가 직장상사로부터 모텔에서 강간을 겪은 사건이다. 가해자는 위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C씨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지만, 결국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다. 항고를 제기하여 어렵게 수사가 제기되어 피해자 C씨와 함께 검찰청에 동행했을 때, 수사담당자는 확보한 CCTV의 영상을 보여주며 만취한 것 같지 않고 연인이 자연스럽게 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사람마다 술에 취한 모습은 다를 수 있고, 나 역시 필름이 끊긴 적이 있는 경험자로서 만취했지만 주변사람들은 내가 술에 취하지 않은 것처럼 멀쩡하게 행동한다고 하였다는 얘기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이후 피해자 C씨와 상담할 때 CCTV 영상에 대해 물었더니, C씨는 만취하면 매우 당황하고 종종걸음으로 걷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그 영상에서 자기가 종종걸음으로 따라 가는 모습은 자신의 평소 걸음걸이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이후 검찰에 피해자 C씨의 진정서와 우리 상담소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가해자는 어렵게 기소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재판부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어 불안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다.

### CCTV가 진실을 말하는가?

형법상 성폭력에 관련된 법에서 ‘강간/강제추행’과 ‘준강간/준강제추행’은 다르다. 강간/강제추행의 입증은 ‘폭행·협박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자행한 것을 의미한다. 앞의 두 사건은 피해자가 비틀거리지도 가해자에게 업혀서 가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피해자 자신의 발로 아파트와 모텔에 따라 들어갔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준강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다.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약물, 술, 잠에 취하여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간음이나 추행은 명백히 성폭력이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증거나 증인이 없을 경우 사건전후의 정황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앞의 두 사건은 그러한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피해자의 외관상 모습’만을 가지고 단선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 진실 여부 판단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몫

피해자의 피해 경험은 다 다르다. 피해를 입는 양상도, 또 피해 이후에 겪는 후유증도 사람의 수만큼 다양하다. 흔히들 성폭력은 어두운 곳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해 끌려가서 겪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 상담사례에서 이런 피해유형은 매우 드물다. 오히려 친족 성폭력, 직장내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처럼 가까이서 알고 지내던 이에게 겪는 성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듯 아는 사람 사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 피해자는 늘 화간이 아니냐는 적대적인 질문 앞에서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추궁당하기도 한다.

위의 두 사례에서 엇갈리는 진술이나 주변인의 증언을 배제한 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이 자신이 생각하는 만취한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성폭력을 둘러싼 뿌리깊은 통념 "그건 강간이 아니라 화간일 것이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공판담당자가 성폭력을 처벌하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비틀거리지 않는다'는 영상판독에 기대어 자신의 통념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 상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를 진정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아야 한다. 이럴 때에만 피해자들이 우리사회의 법의 공정함을 믿고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펼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될 때에만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가 보장되는 사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4

여성주의로 문화예술 읽기  
왜 이 몸이냐고 물으신다면\_제니 사빌(Jenny Saville)

날말퍼즐

아낌없이주는나무

# 왜 이 몸이냐고 물으신다면

제니 사빌(Jenny Saville)

수수 | 여성문화기획자

고기냐, 사람이냐.

가로세로 2미터에 가까운 캔버스는 온통 살로 뒤덮여 있다. 루벤스의 그림처럼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풍만함’도 아니고, 앵그르의 작품에서처럼 매끄러운 표면의 피부도 아니다. 정육점 냉동고에 겹겹이 쌓여 고기처럼, 붉은 조명 아래 육중한 무게를 못 이겨 진자 운동을 할 것 같은 살코기처럼, 제니 사빌(Jenny Saville) 작품 속 사람의 몸뚱이에서는, 고기 비린내가 진동한다.

화면 밖으로 튀어 나올 것처럼 압착되어 보여지는 살들은, 갤러리의 관람객들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킨다. 이 거대한 살들 앞에서, 지방의 노출 앞에서 ‘우리’는 당황한다, 불쾌하다, 혐오감이 인다, 불쌍하다, 경계심이 든다,

혹은…… 에로틱하다?

한국에서야 거대한 몸을 가진 여성의 몸이 성애적 기호로 읽혀지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어떤 문화권에서는 포르노 안의 특정 장르로 정착된 경



〈Shift〉 (1996-1997)



〈Branded〉 (1992)

우도 있다. 최근에 발간된 책 『팻-비만과 집착의 문화인류학』(돈 쿨릭, 앤 메넬리 지음)에는 ‘똥보 포르노’가 소개 되어 있다. 이 포르노에는 몸무게가 300파운드(약 135kg)가 넘는 여성이 나온다. 그리고 성기를 보이거나 섹스를 하는 대신,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 먹이기 ‘피딩(feeding)’이나 음식섭취가 성애적으로 읽혀지기에는 한국사회가 성이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방어적이다. 너무 빨갇게 보고, 너무 대책 없이 위험하다(특히 여성과 남성이라는 구분에 따른 성적 경험과 판타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위험이 더 크다). 게다가 젠더에 따라 몸의 ‘근수’와 ‘형태’에 강박적인 범주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여자의 몸은 관습법 위반이다. 게다가 지방의 관리, 몸의 관리가 개인의 능력과 동의어가 되어 요즈음에, 지방을 잔뜩 지닌 몸의 노출은 그야말로 자기 관리의 실패, 능력 부재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제니 사빌이 드러낸 몸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실패다. 하나는 ‘여자 되기’의

실패, 또 하나는 ‘능력자 되기’의 실패. 이런 겹겹의 실패를 새긴 몸 앞에서 당황한다, 불쾌하다, 혐오감이 인다, 불쌍하다, 경계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저런 몸이 내게 일으키는 이 즉각적인 불쾌감과 혐오감을 곱씹으며 내 몸의 지방이 튀어나온 곳곳을 순시해 본다. 그런 ‘우리’들에게 제니 사발이 묻는다.

왜 이런 몸인가, 나의 몸은.

아니면 당신에게만 왜 이런 몸인가(이런 몸으로 비춰지는가)?

프랑스 작가 오를랑<sup>1</sup>의 급진적인 몸 변형(성형) 수술 퍼포먼스가 아니더라도, 몸이 개인 정체성의 ‘상수’가 아니라는 인식은 보편적이 되었다. 대중 미디어들은 초를 다투어 새로운 신체 이미지를 선보인다. 이 새로운 신체들은 시시각각 첨단을 달리는 도시, 미디어 속에서 재빠르게 적응하고 그럴싸한 정체성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자아들의 이미지와 함께 간다. 모든 것들은 실현가능하다. 그 어떤 사진 속, 영화 속 보다 환상적이고 로맨틱하며 섹슈얼한 광경을 연출하려는 도시, 거기에 발맞추어 세련되고 매력적인 도시 풍경의 하나로 내가 되기에 여념이 없다. 동네까지 침투해 있는 엄청난 수의 다이어트/헬스/체육관 등은 웰빙과 건강까지 챙겨주는 신체변형의 착실한 도우미들이다. 모든 것이 디스플레이(display)되는 도시, 누구나 사진 속에 담고 싶고 누구나 욕망하는 도시되기의 기획에서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디자인시티 서울이나 ‘몽마르뜨’ 같은 서울의 구상 등 - 풍경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시민되기도, 시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떤 형태의 신체모양, 사이즈, 형태, 태도 등을 보여야 하는지 도시 기획자들은 제안한다.

쉽없이 개발하는 도시의 영역 속 몸은 역시나 쉽 없이 개발하여야 하는

---

1) 생트 오를랑(Saint Orlan)은 1947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여성작가로 자신의 얼굴을 성형 수술하는 퍼포먼스로 유명하다. 그녀의 성형 수술은 자본과 미디어가 제안하는 몸의 변형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마에 뿔을 만드는 성형 수술 등을 통해 몸의 미적 기준과 형태가 하나의 구성물임 뿐임을 보여 준다. 그녀의 성형수술 과정은 스크린을 통해 생방송으로 관객들에게 전시 된다.

재개발 부지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한다. 그러나 몸은 아바타와는 다르다. 인간 유전자의 정보, 공동의 기억, 세월을 가늠할 수 없는 인간의 습관, 흘러가 버렸다고 믿었던 감정의 흔적과 폭력의 기억 등이 아로새겨져 있다. 제니 사빌이 그린 몸도 마찬가지로 터이다. 이 몸이 이토록 우리에게 긴장을 주는 건 분명 우리에게 심어져 있는 뚱뚱함, 지방에 대한 혐오일 터이다. 그러나 동시에 눈을 뗄 수 없는 이유는 그 몸에 새겨진 개발의 압력, 변형할 수 없는 몸의 기억, 폭력의 징후 때문이기도 하리라.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새로운 신체들의 제안과 제니 사빌의 작품 속 거대한 살이 주는 불편함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도시의 기획된 몸, 아니면 온갖 허기를 품고 있는 제니 사빌의 몸 뿐일까? 선택지를 벗어난 몸, 몸을 확장하고 이어주는 대리적 공간, 영토들을 찾아보자. 젠더를 기반으로 한 섹슈얼리티 저 편에는 전혀 다른 몸뚱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왜 나는 지금, 이 몸인가. 다양한 먹기, 살기, 일하기, 좋아하기, 놀기를 통해 지금 내 몸의 좌표를 흔들며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몸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서 기억과 함께 모양새를 잡아갈테니.

## 가로 열쇠

4.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 수정란의 자궁내막 착상을 막아 임신을 회피하는 약. 현재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산부인과 처방이 필요하지만 향후 약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6. 청각장애인학교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공지영 작가의 소설. 2011년 황동혁 감독·공유 주연으로 영화화되면서 장애인·시설 성폭력 문제가 이슈화되었다. 여론으로 인해 해당 사건이 재주목되고 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등의 영향을 불러일으켰다.
7. 구리로 만든 돈이라는 뜻. 10원, 50원, 100원, 500원이 통용된다.
9. 서울시는 그간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의 보이기식 행정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어온 바 있다. 2011년 하반기에는 무상급식 정책의 주민투표 결과에 해당 시의 책임자인 ○○이 자신의 자리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2011년 10월 26일에는 서울○○ 보궐선거전이 뜨겁게 치뤄졌다.
12. 기업 간의 연합, 담합 등을 뜻한다. 2011년 국회의원 강용석의 성희롱 사건을 통해 국회의원들 간의 이것을 확인한 바 있다. 본 호의 <쟁점과 입장> 코너에서는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침묵의 ○○○을 비판하고 있다.
14. 풀면서 지적 만족을 얻도록 만든 알아맞히기 놀이. 빈 공간에 숫자나 문자를 채우거나 여러 조각으로 나뉜 도형을 맞추어 넣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현재 이 코너는 낚말○○이다.
15. 성폭력 생존자의 경험을 많은 사람과 나눔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편견에 균열을 내는 행사로서 한 국성폭력상담소는 2003년부터 성폭력생존자○○○○를 개최하고 있다.
16. 19세기 후반 유럽 사회에서 원인을 찾기 어려운 여성들의 신체적 증상에 대해 '여자의 자궁이 뇌에 옮겨졌다는 의미로 자궁을 뜻하는 그리스어 hysteria를 따서 ○○○○라 불렀다. 본 호의 <기획특집> 코너를 참고.

## 세로 열쇠

1.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사회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본 적이 없는 노동. 모든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지만 유독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노동
2.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한다는 뜻. 성폭력예방교육, 자기방어훈련 등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능력과 전략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3. 여성,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규제 등을 기치로 출범했던 여성부의 후신. 현재는 여성, 가족·청소년 정책 및 건강 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 ○○○○○로 재편되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슈로 여성부 시절부터 존재했던 철폐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으며, 해당 부처의 철학과 정책의 재고와 실질한 상황이다.
8. 여러 가지 물품을 한곳에 벌여 놓고 보인다는 뜻. 올해 12월 1일부터 6일까지로 예정된 8회 성폭력 생존자말하기대회는 생존자가 빚어낸 시각예술작품의 ○○로 개최된다.
10. CCTV는 범죄 용의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 있다고 하지만, 편견을 바탕으로 그릇된 판단을 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11. 19세기 말, 유럽에 거주하던 ○○○ 파편하임은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자인 프로이트에게 '대화 치료'를 제안하는 등 노력을 하여 효과를 보았다. 이후 프로이트가 연구결과를 수정함으로써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나, 이름을 바꾸고 여성들을 위한 사회사업가로 변신했다. 본 호의 <기획특집> 코너를 참고.
13. 원래는 원청업체로부터 위임된 생산공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서 사내하도급과 같은 의미.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임금을 지급 받고, 파견의 성격을 띄지만 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현재 현대차의 ○○○○ 업체에서 발생한 성희롱·부당해고의 해결을 촉구하는 천막투쟁이 진행 중이며, 정규직화 요구 파업으로 인해 징계 당한 해당 업체의 노동자 193명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한 바 있다.
14. 공연이나 행위 등을 뜻하는 영단어. 본 호의 <여성주의로 문화예술읽기> 코너에서 언급한 프랑스 작가 생트 오를랑의 몸 변형(성형) 수술 ○○○○는 자본과 미디어가 제안하는 몸의 변형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  
 <반성폭력> 3호를 읽었다면 맞출 수 있는 낱말퍼즐.  
 힌트는 물론 본문에 있습니다!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정답을 12월 말까지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하여 두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ksvrc@sisters.or.kr

주 소 (121-884)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한국성폭력상담소

# 아낌없이 주는 나무

2011년 8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권나현 권서영 권인자 김상정 김재원 김현경 김현자 나인선 백미순 백지훈 심금채 윤지원 이정호 이석주 이현희 이혜일 조혜진 진새록 차우진 홍유미

2011년 8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100주년기념교회 강가람 강근정 강기순 강남식 강동화 강득록 강명지 강민녀 강보길 강선미 강수준 강영강영미 강영순 강영화 강은주 강이현주 강인화 강정희 강지이 강혜숙 강희진 계경문 고금이 고미라 고보경 고은별 고재경 고정남 고정삼 고효주 광옥미 광윤이 구민지 구민희 구분준 권경희 권주홍 권기욱 권김현영 권나현 권명진 권민혁 권서영 권소영 권오란 권인숙 권인자 권주희 권혜수 금철영 김가희 김강자 김경선 김경아 김경애 김경태 김경현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광만 김광진 김금선 김기혜 김나연 김난형 김다미 김다운 김대숙 김덕현 김도연 김동래 김동령 김동희 김두나 김돌순 김라희 김매정 김명숙 김문빈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량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주 김미희 김민진 김민선 김민성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민환 김범은 김병필 김보연 김보화 김봉섭 김상미 김상민 김상정 김상호 김상희 김샛별 김석계 김선경 김선미 김선민 김선에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동 김성문 김성자 김세중 김세훈 김세희 김소명 김소연 김소연 김수 김수민 김수연 김수정 김수진 김숙영 김순자 김승구 김아리 김애라 김애란 김양지 김엘림 김연경 김연경 김연우(김태진) 김연정 김연지 김연진 김연희 김영서 김영선 김영세 김영선 김영애 김원환 김예람 김예지 김옥주 김용관 김용백 김원식 김원정 김원희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윤정 김윤희 김윤희 김은경 김은숙 김은아 김은정 김은정 김은지 김은하 김은혜 김은희 김용진 김의창 김외자 김이미나 김이슬 김인에 김인철 김인혜 김일륜 김자경 김자현 김재동 김재원 김재원 김재운 김재훈 김정민 김정수 김정완 김종수·권상범 김종희 김주영 김주희 김준호 김지미 김지선 김지연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진숙 김진영 김진희 김준정 김탁환 김태섭 김태환 김택진 김하나 김하나 김하연·나성일 김하정 김학실 김한상 김한선혜 김혜경 김해리 김현 김현경 김현경 김현란 김현성 김현수 김현숙 김현자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진 김형수 김혜경 김혜련 김혜숙 김혜승 김혜연 김혜영 김혜영 김혜정 김혜정 김혜진 김혜현 김화영 김효성 김효진 김효진 김희정 김희정 김희재 나길희 나미나 나윤희 나인선 남길석 남덕우 남성희 남정현 남현미 남현우 노경란 노귀연 노길옥 노미선 노민희 노복미 노선이 노수희 노유성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지성 도병옥 도상금 라길자 류란 류종현 류진봉 목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길환 문길환 문길재연 문미라 문미정 문수연 문숙영 문영민 문준희 문지영 문지은 문현정 문효진 박경미 박경훈 박다위 박덕인 박명숙 박미경 박미라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영 박미향 박미현 박민주 박병현 박보연 박상규 박상순 박상희 박상희 박서원 박선숙 박선희 박성주 박세정 박소라 박수연 박수연 박수현 박순복 박승일 박아름 박영 박영주 박윤미 박윤숙 박윤주 박은미 박은진 박은혜·이준기 박재형 박정란 박정순 박정연 박정옥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중선 박주연 박준민 박준숙 박지나 박지영 박진숙 박진표 박창경 박하윤경 박현달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현주 박현준 박혜진 박효정 방기연 방상의 방은계 배경배은경 배자하 배재훈 배정원 배정철 배지연 백명숙 백미륜 백미순 백선희 백성길 백세희 백지선 백지훈 백현 변계희 변순임 상국스님 서권일 서명선 서명호 서미현 서민자 서백열 서범원 서석호 서순진 서영주 서예린 서용완 서윤숙 서정기 서정에 서정표 서정훈 서주연 서태자 서혜인 서희석 서희순 선희갑 설동민 설연자 성나리 성지은 손경이 손기주 손명구 손명화 손미연 손보경 손연성 손우성 손준성 손희정 송미희 송민성 송수영 송승훈 송애랑 송요신 송은숙 송은주 송지선 송치선 송호균 송혜영 신경우 신경혜 신나영 신동현 신동훈 신명숙 신문창 신상숙 신상호 신선에 신성용 신영미 신원계 신윤진 신은재 신은주 신정혜 신종훈 신현 신현정 신현주 신혜성 심난숙 심소영 심수희 심진섭 심창교 심현실 심혜련 안문환 안민 안보라 안윤미 안재훈 안정은 안창혜 안채영 안철민 안효룡 안형운 안홍자 양미초 양민희 양성옥 양수안나 양예경 양영희 양영희 양윤희 양은주 양지혜 양창수 양현경 양현구 양효준 엄경철 엄인숙 여한숙 엄명덕 오경희 오광수 오다현 오미근 오세희 오송환 오숙희 오승이 오신혜 오자영 오정진 오정희 오진아 오현숙 오현주



오혜란 오혜진 옥민영 우안녕 우완 우윤희 원경주 원민정 원민혜 원성혜 원순경 원찬원 원형섭 원혜숙  
 유경란 유경희 유계옥 유배숙 유상열 유선옥 유선원 유세정 유여원 유연택 유예리 유은주 유재영 유정호  
 유해숙 유향순 유현광 유환숙 옥상근 옥향순 윤나래 윤법석 윤석남 윤소정 윤소희 윤수련 윤수연 윤숙경  
 윤애리 윤양지 윤양현 윤연숙 윤영란 윤영숙 윤영호 윤영훈 윤용미 윤인영 윤자영 윤정의 윤지영 윤지원  
 윤지현 윤지희 음선화 이경로 이경미 이경숙 이경아 이경아 이경아 이경은 이경자 이경호 이경호 이경환  
 이계형 이고은 이광숙 이규화 이금란 이김명란 이나래 이나영 이남주 이내화 이다정 이도규 이동원 이동현  
 이명숙 이명숙 이명철 이명희 이문주 이미정 이미정 이미정 이미현 이민정 이민철 이병주 이보라 이부덕  
 이상근 이상미 이상연 이상은 이새롬 이서영 이서지 이석주 이선정 이선미 이성수 이세원 이소림 이소영  
 이소희(권승엽) 이승이 이수안 이수웅 이승구 이승기 이승숙 이승진 이신정 이어진 이연실 이연정 이영기  
 이영란 이영미 이영아 이영주 이영백 이예지 이용창 이원경 이원경 이원수 이원실 이원훈 이유리 이유정  
 이유정 이유정 이운상 이운선 이운성 이운옥 이윤희 이은 이은미 이은비 이은상 이은심 이은애 이은영  
 이은주 이은지 이은현 이은화 이인숙 이인환 이재순 이재은 이재인 이정민 이정봉 이정숙 이정순 이정자  
 이정은 이정은 이정화 이종국 이주현 이주현 이준주 이준범 이준형 이지선 이지선 이지영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진숙 이진아 이찬희 이창원 이창운 이태희 이태숙 이혜사랑 이향실 이현숙 이현희 이혜경 이혜일  
 이혜정 이혜진(이진주) 이호균 이호중 이호진 이홍연 이효섭 이희경 이희수 이희영 이희화 인정환 임복선  
 임선자 임수연 임승연 임승환 임자영 임주희 임지숙 임지선 임지선 임현홍 임홍섭 임희윤 장규형 장다혜  
 장미정 장민정 장서영 장성희 장순례 장영애 장영희 장유진 장윤경 장윤성 장윤정 장은미 장익수  
 장정희 장중순 장진 장혜란 장효정 장광우 전민주 전병미 전보임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영아 전유경  
 전정옥 전정현 전지현 전혜영 전호완 정경아 정경애 정교하 정귀원 정다미 정대근 정대성 정덕기  
 정동범 정동연 정두영(강혜숙) 정명중 정문영 정민이 정복련 정세원 정소린 정소영 정숙경 정순옥  
 정순희 정안나 정어진 정영석 정영선 정예지 정옥실 정유림 정유석 정윤경 정윤아 정은선 정재훈(나선영)  
 정정기 정정희 정정희 정준애 정지민 정지현 정진옥 정진화 정창수 정창희 정혜랑 정현 정현희 정혜신  
 제갈향선 조계삼 조규선 조나단 가이 파울러 조민우 조상희 조서연 조선주 조성천 조성혜 조소연  
 조영선 조용범 조윤주 조은 조은숙 조은영 조은정 조은희 조인섭 조인섭 조인우 조일래 조재욱  
 조정은 조중신 조지혜 조진희 조현미 조형원 조혜영 조혜진 존타클럽 주광용 주리아 주명희  
 주혜정 주희진 지승경 지은정 지인숙 진새롬 진석중 진태란 차성안 차우진 차인숙 차현영 채우리 채하승  
 연 채현숙 채희영 천정환 최경식 최광락 최광식 최광옥 최규영 최기홍 최동석 최명숙 최미경 최미숙 최보원  
 최석우 최신규 최선아 최성숙 최성옥 최성호 최성화 최소남 최수연 최수연 최수인 최숙희 최순미 최아원  
 최연선 최영애 최영지 최옥경 최왕열 최용득 최유미 최유진 최유미 최운수 최윤정 최은경 최은영 최정림  
 최정은 최정인 최정의 최주정 최지나 최지니 최지영 최현무 추민주 추경희 추주영 추혜인 춘옥 탁옥희 표원  
 하다영 하대호 하수은 하은주 하종석 하주선 하진옥 한국야마자키마작(주) 한기모 한문형 한미화  
 한병규 한보경 한석규 한수현 한승진 한승희 한양희 한영규 한영미 한윤정 한이계영 한재철  
 한전부녀회 한전부인회 한희정 허경현 허남주 허라금 허복옥 허순만 허은주 허이화 허정익 허준석  
 허효정 현정순 홍만희 홍민철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순기 홍유미 홍유진 홍윤기 홍은정 홍일선 홍재진  
 홍진경 홍혜선 황미선 황상하 황성기 황숙희 황순경 황재호 황인관 황정임 황정진 황지성 황지영 황지윤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소를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

강대열 강장자 강지원 강진자 강학중 고정남 광미정 권윤진 권익수 권진구 권형구 김경현 김덕현 김명희  
 김미주 김삼화 김선영 김예지 김옥란 김재남 김정희 김준길 김진영 김태진 김혜정 김화영 김효선 김희숙  
 노주희 나인선 니콜라 레나레빗 명진숙 문경란 문해란 민남기 박기원 박미란 박상순 박서현 박운숙  
 박운순(YM건설) 박지만((주)EG) 배경 배삼희 배정철 변대규 변혜정 손용석 시연숙 신동언 신상호  
 신혜경 심공채 안백린 안채영 안형정 야기시노부 우기호 유소영 유효상 이경환 이경훈 이기철 이덕화 이동림  
 이명선 이명숙 이미정 이명규 이병우 이상규 이승기 이안나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유미 이유미 이유정  
 이정숙 이혜정 이혜사랑 이화영 이효숙 임미화 임순영 장병환 장윤경 장필화 전성혜 정경자 정동범  
 정몽훈((주)효광) 정안나 정영택 정재정 정진옥 정휘재 조선혜 조성천 조영미 조영황 조인석 조일래 조재욱  
 주관수 채영수 천수빈 천정환 청담마리산부인과 최보원 최영애 최정은 한국갤테크 허정 홍성규 홍순기 홍승아



펴낸곳 \_ (사) 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이 \_ 이윤상

만든이 \_ 이윤상

디자인 \_ 디자인IS

펴낸날 \_ 2011년 11월 15일

주소 \_ (121-884)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전화 \_ 02-338-2890~2

팩스 \_ 02-338-7122

홈페이지 \_ [www.sisters.or.kr](http://www.sisters.or.kr)

이메일 \_ [ksvrc@sisters.or.kr](mailto:ksvrc@sisters.or.kr)

블로그 \_ [www.stoprape.or.kr](http://www.stoprape.or.kr)

트위터 \_ [www.twitter.com/stoprape](http://www.twitter.com/stoprape)

「반성폭력」은 디자인IS의 재능기부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반성폭력]** <반성폭력>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소액후원부터 본 지면에 실릴 광고까지, <반성폭력> 발간에 힘을 실어주세요.

후원 및 광고 문의 : 02·338·2890~2  
ksvrc@sisters.or.kr <반성폭력> 편집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자유롭고 명동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은 '참어'입니다.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서로 신뢰하며 일하는 일터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터

성별, 성적지향, 나이, 인종, 장애여부 등이 차별을 만들지 않는 사회  
진지한 소통과 따뜻한 연대가 살아있는 사회를 상상해봅니다.

이 멋진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는 기부,  
기부는 더 넓은 시각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후원방법 CMS 자동이체, 카드이체, 일시기부 등 후원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sisters.or.kr/> (상담소 후원하기 메뉴) 전화 02-338-2890~2  
(회비는 연말정산 시 100%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거침없는 아이 난감한 어른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 494 쪽 | 8,000 원

아직도 일할만 붙하시나요?

엄마들이 뒀어놓은 소중한 고민과  
경험가들의 생애관 담백이 함께합니다!

김영미

아직도 아이들과  
성을 이야기하기 불편한가요?  
아이들의 거침없는 질문 앞에  
난감한 어른들을 위한  
맞춤형 성교육 지침서!

준비된 부모를 위한 성교육 Q&A

## 거침없는 아이 난감한 어른

〈거침없는 아이 난감한 어른〉은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해 난감해하는 많은 어른들을 위한 책입니다. '성'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타놓고 이야기하는 이 책은 아이와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고 자신 없는 많은 어른들에게 든든한 지침서가 되어 줄 것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 김백애라 · 정정희 지음 | 10,000원 | 문학동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 보통의 경험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이재진

성폭력과 맞서는 힘은 내 안에 있다!  
'보통의 경험'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여자들을 위한  
성폭력 대처법 교과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 보통의 경험

넘어가는 책장 만큼 독자를 위로하고 손 내밀어 이끌어주는 〈보통의 경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전 과정을 빠짐없이 담고 있기에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교사, 상담자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가장 먼저 찾아가려는 독자는 바로 성폭력 피해자 당사자. '보통의 경험'을 안고 살아가는 '보통의 여성'들입니다. 내가 그때 겪은 그 일이 자꾸 떠오른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또 다시 겪을 지도 모르는 일에 미리 대처하고 싶다면 〈보통의 경험〉을 펼쳐보세요. 성폭력과 맞서는 힘은 세상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언니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지음 | 12,000원 | 이재진 출판사